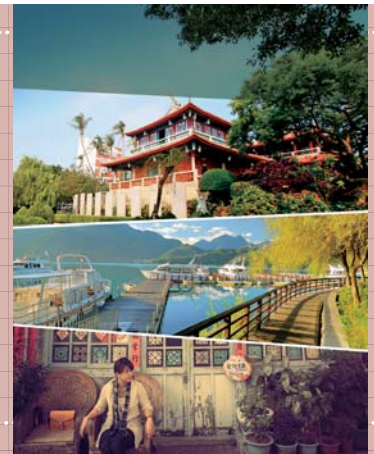


타이완



CONTENTS

News

- 푸통푸통 24시 타이완 2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

Festival Column

- 타이난(台南)을 탐험하다 6

City Visit

- 타이난 8
- 특색있는 거리 해안로, 신농가 18

Special Plan

- 고속철도+일반열차의 더블 여행 22

Shop

- 특색 있는 문화 창작 상점 28

Recommend

- 땅 하늘 바다로 즐기는 일월담(르위에탄;日月潭) 32
- 난도우(南投) 인문예술 여행 34
- 매력이 넘치는 타이중(台中)여행 36

Food

- 대만의 아침식사 38

Culture And Art

- Statistic 42
- 44



창간일시 : 2012년 5월
 발행호수 : 04
 발행일자 : 2013년 2월 ~ 2013년 4일
 대만관광협회(台灣觀光協會) 회간
 회장 : 張家祝
 명예회장 : 嚴長壽, 張學勞
 부회장 : 戴啟珩, 朱鐘宏, 李昌霖
 발행인 : 張家祝
 편집고문 : 王全玉, 陳映廷
 발행 : 재단법인 대만관광협회
 주소 : 타이페이시 민권동로 2단 9호 5층
 TEL : 886-2-2594-3261 ~ 4
 FAX : 886-2-2594-3265
 E-mail : tva-fifi@umail.hinet.net
 http : //www.tva.org.tw
 Blog : blog.naver.com/visit_taiwan

대만관광협회 서울사무소
 주소 :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번지 경기빌딩 8층 804호
 TEL : 82-2-732-2357 ~ 8
 FAX : 82-2-732-2359
 E-mail : taiwan@tourtaiwan.or.kr
 http : //www.tourtaiwan.or.kr

발행처 : 시야국제문화사업유한공사
 발행인 : 嚴立
 사장 : 虞炳昌
 총편집장 : 蔣雯
 부편집장 : 嚴寬行
 총편집 : 劉恩英
 총감수 : 李建樹
 부감수 : 尹銘菁
 기획 : 蘇曉晴, 鄭靖瑜, 朱佳雯, 張舒涵, 張召儀
 번역 : 尹甫敬, 董文君, 金那映
 아트디렉터 : 陳瑞和
 디자인 : 宋育玫, 陳語萱, 張馨尹, 鄭亦倫
 업무부 : 林睿越, 呂麗君, 蔡欣宜, 陳皇亘, 呂培佑, 楊椀喻
 발행부 : 江秀明, 劉乃甄, 歐陽致仁, 羅榆翔
 재무부 : 蔡慧君
 법률고문 : 거군 국제전리상표 법률사무소 외국 안 변호사
 주소 : 타이페이시 후싱베이로 2호 10F-5
 TEL : 886-2-2711-5403
 FAX : 886-2-2721-2790
 E-mail : editor@v-media.com.tw
 http : //www.v-media.com.tw
 인쇄 : 훈우 채색제판인쇄유한공사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타이완여행 경험이 담긴 사진과 글을 보내주시면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두근두근 푸통푸통 24시 타이완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은 더 많은 한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이완 여배우 진의함과 한국드라마 「The King 2 Hearts」에 출연한 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조정석을 타이완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그들은 단편 영화를 통해 한국관광객에게 타이완의 독특한 면모와 매력을 알리고, 맛있는 타이완요리, 아름다운 경치 및 인간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한국관광객의 타이완 방문자수는 현저하게 성장하였다. 교통부 관광국은 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타이완 자유여행 유치를 위해 특별히 「건축학개론」, 「The King 2 Hearts」에서 열연한 조정석과 톡톡 튀는 매력의 타이완 여배우 진의함을 초청하여 마이크로 무비를 통해 타이완을 홍보하였다.

영화제목은 「푸통푸통(두근두근) 24시 타이완」이고, 배경은 주로 타이완 중부의 난타우현과 남부의 타이난시이다. 14분 가량의 무비에서 조정석과 진의함은 우연히 만나 함께 타이완의 맛있는 요리, 인심 좋은 민박집 여주인, 편리한 「타이완하오성(台灣好行)」 관광버스, 실감나는 원주민문화, 여유로운 자전거 여행, 고요한 고적역사, 옛거리 문화, 즐거운 쇼핑 등 다양하고 풍부한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볼거리를 함께 체험한다. 관중들은 푸통푸통 24시를 통해 타이완의 맛있는 요리, 아름다운 경치 및 사람들의 인심에 두근두근거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영화에서 남녀주인공은 난도우 르웨탄에서 자전거를 타고, 타이난의 고적과 옛거리에서 함께 산책하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동시에 타이완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를 한국젊은이들에게 소개한다. 무비를 본 관객들은 「푸통푸통(두근두근)」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타이완을 연상하며 여행하고 싶어질 것이다.

무비 홈페이지 :

<http://www.putongputong.com//index.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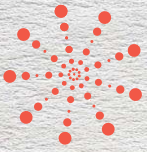
배우소개 :

진의함(陳意涵) Ivy Chen
타이완 신세대 여배우. 영화 《청설》과 드라마 《비자영웅》에서 여주인공으로 열연했고, 현재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신세대 연기자 중 한 명이다. 영화 《청설》로 제 12회 타이베이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조정석

한국 남자배우. 2004년 뮤지컬 《호두까기인형》으로 데뷔하여 꾸준히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해오고 있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과 드라마 《The King 2 Hearts》에서 열연한 후 인지도를 높였고, 《건축학개론》으로 제 33회 청룡영화제 신인 남자 배우상을 수상했다.

Taiwan
THE HEART OF ASIA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만관광협회 회장 장지아주(張家祝)

한국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 몇 년간 대만관광이 나날이 큰 인기를 받으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2012) 대만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470만 명을 넘었고, 그 중 한국인 관광객은 25만 9,089명을 차지하면서 전보다 6.6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인 관광객 수는 53만 명을 넘었고 전보다 25.86%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양국의 목표 방문객 합계수치인 10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대만관광을 통하여 양국의 교류가 증가하고 이해관계가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작년 4월 말 서울 김포-타이베이 송산 간 노선을 개항하면서 양국의 왕래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5월에 들어서 본 협회에서는 대만과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정식으로 한국어 간행물과 블로그(http://blog.naver.com/visit_taiwan)를 통하여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대만여행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만 관광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통부 관광청에서는 한국의 결혼 가정 자녀들을 초청하여 대만을 여행시켜주거나, 대만 여자 연예인 천이한(陳意涵)과 한국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남우상을 수상한 배우 조정석이 한국에서 대만 관광 홍보대사를 맡는다면, 대만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음식, 문화, 오락을 체험할 때 언제 어디서든 「두근두근」 거리는 설레임을 느낄 수 있도록 단편영화 「두근두근 24시 타이완」을 찍는 등 끊임없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대만과 한국의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대만 방문을 통해 양국민간의 정이 더욱 두터워지길 바라며, 올 한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로 지금 타이완을 여행합시다!



張家祝





臺灣觀光年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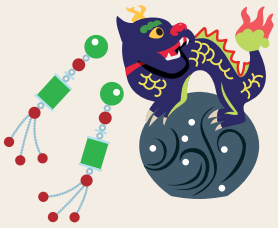
타이완 관광 이벤트 일정



축제 포커스 타이완 등회

타이완 등회는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이 매년 원소절(정월대보름) 기간동안 국가급의 대형 등불축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띠와 지방특색을 살려 도시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도시의 중요한 축제이다.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에도 소개될 정도로 손꼽는 글로벌 축제로서 TV프로그램인 《Fantastic Festivals of the World》에도 타이완 등회가 불만한 축제로 소개된 바 있다.

올해 타이완 등회는 신죽에서 열리게 되며, ‘만화, 과학, 문화’의 지역 특색을 살려 뱀띠해의 이미지와 함께 5개 테마를 주제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등회장소는 교통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신죽역 및 육가철도역(六家站) 주변에서 열린다. 타이완철도 내완선을 거쳐 죽중(竹中), 죽동(竹東), 내완(內灣), 주베이 신와옥 커자보존구역(竹北新瓦屋客家保存區)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축제를 통하여 신죽 출신의 인기만화가 유흥흠(劉興欽)의 작품과 신죽의 과학산업, 객가문화, 원주민문화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2013타이완등회 죽관연회 (2013台灣燈會 竹光盛宴)

「만화, 과학, 문화」를 주제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축제로 타이완의 커지문화민요대회, 화등여행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철도 내완선, 타이완호행 ‘신죽사산선(新竹獅山線)’을 이용하여 원주민, 온천, 객가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축제를 철도여행으로 즐겨보자.

- 📍 2월 24일~3월 10일
- 📍 신죽현 주베이시 고속철도 특정구역
- ☎ +886 3-551-8101
- 🌐 2013taiwanlantern.net





축제 이벤트 일정



타이페이 보생문화제 (台北保生文化祭)

보생대제 탄생기념일(음력3월 15일)전후로 펼쳐지는 대형축제로 타이페이의 3대 모회 중 하나이다. 신명소경여행 외에도 15일 오후 1시에 타이선차오에서 폭죽의식을 갖는다. 공연외에도 고적관람, 문물전람, 민속공연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 📅 4월 ~6월
- 📍 타이페이시 보안궁
- ☎ +886 2-2595-1676
- 🌐 www.baoan.org.tw



까오슝 내문 송강진 (高雄內門宋江陣)

송강진은 중국무예와 민속공연이 결합한 공연으로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에 나타난 종교 무술공연이다. 까오슝 내문은 송강진의 기원으로 지금까지 전통민족기예의 적극적인 보전을 통해 매년 불교 관음기념일(음력 2월 12일 ~ 19일) 타이완각지에서 송강진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 📅 3월말~4월초
- 📍 까오슝시 내문구 남해자죽사
- ☎ +886 7-799-5678 ext.2937
- 🌐 www.who-ha.com.tw



핑후 해상 불꽃축제 (花火節)

핑후현정부가 관광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한 축제로 매년 초여름에 열리며, 가요공연과 낭만적인 음악과 함께 불꽃축제가 핑후의 밤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 📅 4월 1일~6월 30일
- 📍 핑후현
- ☎ +886 6 927-4400
- 🌐 www.penghu.gov.tw



춘랑 뮤직페스티벌 (春浪音樂祭)

대중가요를 위주로 공연이 펼쳐지며 국내외 음악팬들의 환영을 받아 7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타이완의 인기가수를 볼 수 있고 남타이완의 푸른하늘과 아름다운 야경 아래 낭만적인 음악을 즐길 수 있다.

- 📅 4월 3일~4월 7일
- 📍 핑동현 킨딩
- ☎ +886 2 2356-9888
- 🌐 www.spring-wave.com



타이중 따자 마주 국제관광문화축제 (台中大甲媽祖國際觀光文化節)

타이완의 민간신앙인 해신 '마조'의 탄생기념일을 경축하는 축제로 세계 3대 종교축제로서 Discovery채널에 소개된 바있는 화려한 축제다. 7박8일간 계속되는 축제로 긴 행렬이 이어지며, 타이중, 장화, 원린, 자이등 4개 현에서 만명 이상의 군중이 약 300여 킬로미터를 행단하는 큰 축제이다.

- 📅 음력 3월
- 📍 타이중 따자전 순천로 158호
- ☎ +886 4-2676-3522
- 🌐 www.dajiamazu.org.tw



{ 타이난(台南)을 } { 탐험하다 }



여행작가 양소희 (梁昭嬉)
 책 <타이완 홀릭>, <오! 타이완>, <타이베이에 반하다> 출판
 타이완관련 강의를 및 방송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
 Blog: blog.naver.com/taiwan_

타이난(台南)과의 첫 만남

타이완에서는 설날을 한 해를 넘기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꾸어 니엔'(過年)이라고 부른다. 꾸어 니엔(過年)은 타이완에서 가장 큰 명절기간이라 학교와 직장이 여러 날을 쉰다. 그 때는 타이완에서 공부하던 첫 해라 이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 어쩔줄 몰라하는 나에게 타이완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새해를 맞자고 초대를 해주었다. 그때 간 곳이 첫 타이난과의 첫 만남이다. 연락을 받자마자 두 번도 생각 안하고 냉큼 타이난으로 가는 초속기차를 탔다. 타이난으로 향해가는 동안 어디를 가야할지 열심히 공부 했다. 그런데 너무 갈 곳이 많아 타이난 탐험은 예정된 이를 일정으로는 다 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과거의 영화를 고스라니 안고 있다는 타이난은 어떤 모습일까 몹시 궁금하고 설레는 동안 내가 탄 기차는 고속기차란 말 그대로 어느새 생 타이난에 데려다 주었다. 타이난은 이제 타이완에서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곳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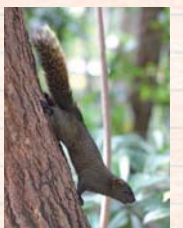
타이난(台南)

타이완 발전의 초석이 된 오랜 역사의 고장. 타이난은 이전에 푸친(府城)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타이완의 수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타이베이에서 330km 떨어진 타이난은 고속기차로 1시간 30분 버스로는 4시간 15분이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 16세기 초 대륙의 푸지엔성(福建省)에서 건너온 한족들에 의해 타이완의 근대사가 시작된 후,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 식민지 정책의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그러나 명나라 정성공(鄭成功)이 이들을 물리친 후 200여 년 동안 타이완의 중심 도시로 번영을 누렸다. 이전에는 평부주(平埔族)라고 불리는 평지 원주민들의 땅이기도 했다.

ALL PASS-공자묘(孔子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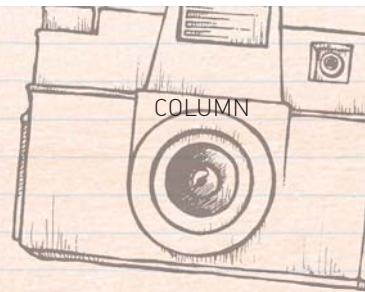


타이완 사대에 들어서면 입구에서 공자님이 매일 학생들을 맞아 주신다. 타이완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장 많이 만난 분이 공자님이시다. 엄밀히 말하면 공자님 동상이지만, 공자님은 날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모든 시험은 올 패스(ALL PASS)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매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힘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 올 패스 통과를 했다. 철학자이자 학자였던 공자는 기원전 515년 중국 대륙 산둥(山東) 곡부(曲阜)에서 태어났다. 현재 공자의 직계종손은 타이완으로 망명을 와 있다. 2006년 공자의 80대 종손이 타이베이현에서 태어났다. 타이난의 공자묘는 타이완 전역에 수없이 많은 공자묘 중 처음으로 지어진 공자사원으로 1655년 창건 되었으며 타이완에서 첫 학교이기도하다. 그래서 타이완에서 타이난의 공자묘가 가장 유명하고 의미가 있다. 타이완은 스승의 날이 공자탄신일인 9월28일로 공휴일로 정해 그 뜻을 기리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로 교육을 중요시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타이완에 와보니 우리나라 못지않게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한다.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의 교육수준 또한 매우 높다. 그런 타이완 교육의 중심에 공자님이 있는 것이다. 이곳 타이난 공자묘에 들어서면 오래된 시간의 깊이가 주는 편안함이 있다. 청솔모(饑松鼠)를 발견했다. 다가가니 사진을 찍으라고 포즈를 잡는 듯 멈추어 준다. 타이난의 공자묘는 대교사원과는 다르게 장식도 많지 않고 단정하며 조용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주소: 타이난시 남문로 2호(台南市南門路2號)
 전화: +886 6 221-4647
 개방시간: 09:00~17:00
 * 사진설명 ; 타이난 공자묘까지 왔다면 길 건너편에 작은 길거리인 푸중지에(府中街)를 잠시 둘러보자!

타이완에서의 중국어 공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몹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타이완 사람인지 구분이 안갈 만큼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공자님은 그런 나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 "당신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델란드 점령지-츠칸로(赤嵌樓)

타이난에서 가장 유명한 고적지는 츠칸로(赤嵌樓)이다. 네델란드인들이 행정 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1653년에 쌓은 타이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1662년 정성공(鄭成功)이 이끄는 반청세력에 의해 네델란드가 항복하면서 정성공의 사령부로 역할을 했었지만 1684년 새로 일어난 청에 의해 정복당한 후 버려졌다. 19세기 중반 지진으로 파괴된 것을 복구하면서 서원으로 다시 짓고 지금의 문창각(文昌閣) 그리고 해신묘(海神廟)로 남게 되었다. 이 후에도 츠칸로(赤嵌樓)는 일본 점령시기에 여러 차례 중건되었다. 이곳에서는 17세기 네델란드인이 축성한 성벽 일부가 아직 남아 있어 당시의 타이완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건물 앞에는 청나라 때 만든 9개의 돌로 된 거북이 등위에 세운 비석이 있다. 거북이 등에 커다란 비석 9개가 모셔져있는데 청나라 건륭제 때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기념으로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원래는 10개였으나 모셔오던 중 하나를 실은 배가 사라져 버려 9개가 이곳에 있다고 전해 온다.

츠칸로 안에는 네델란드인이 지었던 그 당시의 건물이 모형으로 있다. 지금의 중국풍 건물보다는 예전의 네델란드식 건물이 이 자리에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지어졌던 건물은 네델란드인의 안전을 위해 높은 벽이 있었으며 문은 오직 하나만 있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되는 건축물이다. 지금은 막혀있는 출입구 옆에 다리가 잘린 단족석마(斷足石馬)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말은 밤만 되면 악마로 변해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 별을 내려 다리가 잘린 후에야 나쁜 짓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한다. 왜 그랬는지 단족석마(斷足石馬)가 혼자 서 있기가 너무 외로워 자신을 알아달라고 그랬던 것은 아닐까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살짝 토닥여 주고 나왔다.



주소: 타이난시 중서구 민족로 2단 212호 (台南市 中西區 民族路 二段 212號)
전화: 06-220-5647
개방시간: 매일 08:00~21:00
입장료: 50NT

- * 사진설명-정성공이 네델란드인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장면
- * 사진설명-우물인 듯 보이는데 바다의 배를 탈 수 있는 곳까지 연결된 탈출구이다. 소수의 네델란드인이 다수의 현지인들의 반란에 대비해 만든 것이다.
- * 사진설명- 도자기 모양의 출입구가 특이하고 예쁘다.
- * 사진설명-물고기가 하늘을 향해 물을 뿜는 모양의 지붕 용마루. 하늘을 바다로 본 생각이 재미있다.



가르침의 바나나 -차오지열소우수디앤(草祭二手書店)

서점에 들어서면 창이 없는 벽에 붙어 있는 방법창들이 있다. 착한 사람의 눈에만 벽이 창으로 보이는 건가? 히히 웃으며 들어가는 데 입구 한가운데 바나나 송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짜인가 쓸쩍 만져 보고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진짜 바나나였다. 이 서점은 도대체 책 외에 뭐가 더 있는 거지? 호기심을 가지고 책꽂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구슬이 들어 있는 옥조가 책들 사이에 너무도 태연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서점에서 옥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거니?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긴 사다리를 놓아야만 꺼낼 수 있는 아주 높은 책꽂이가 있었다. 전문 서적들과 오래된 고서적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헉! 지하로 내려가는 일층 바닥을 넓게 뚫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철근 골조를 그대로 놔두었다. 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지하 룸은 예술작가의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시 돌아 나오려는데 이 건물은 별개의 두 개 건물을 사서 건물사이 간격을 이어 붙인 구조였다. 통로에는 투명한 소재로 이어져 어두운 서점에 햇볕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원래는 없었던 자연의 빛을 내부공간으로 들어오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바나나가 놓여 있는 입구로 돌아 왔다. 서점에 책과 함께 바나나가 왜 전시되어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이란 언제까지고 마냥 그 자리에서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과일은 먹을 수 있는 때를 놓치면 썩어 버려 먹을 수 없게 되므로 책도 읽어야 할 타이밍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읽어야할 시기에 맞는 맛있는 책을 먹어야한다는 의미 아닐까? 그렇다면 책도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먹을거리가 되는 셈이다. '아~ 심오하다.' 혼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 본 바나나는 어쩐지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다.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바나나 맛이 어떤지 궁금했다. 나는 서점 직원을 불러 코디 되어 있는 가르침(?)의 바나나를 기어올라 먹어 보았다. 그리고 바나나가 준 깨달음을 뱃속에 넣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마음을 안고 서점을 나왔다. 차오지열소우수디앤(草祭二手書店) 이 서점은 공자묘 앞에 위치한 서점이라 공자의 기를 받아서 일까? 공부의 깊이와 차원이 다른 서점과는 많이 달랐다.

blog.roodo.com/tsaochi_bookstore





타이완을 여행한다면 타이베이만 같 것이 아니라 고속철도를 타고 남부로 이동하면 남타이완의 넘치는 인정미와 자연,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옛 도시의 문화를 간직한 타이난은 유명한 유적지와 전통 맛거리를 경험할 수 있고 여기에 타이완 남부의 풍부한 자연이 더해져 휴양 및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계획하여 역사도시 타이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보자.

사진제공 : 타이난시정부 관광여행국, 시아국제문화





촬영 / 귀잉핑郭英平

촬영 / 오싱허尤森禾

타이난은 전 타이완 중 가장 역사 깊은 도시이며, 네덜란드인과 명나라 정성공(鄭成功), 청나라를 거쳐 19세기까지 타이완의 정치 및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타이난 시에는 유적이 많이 있으며, 타이난 공자묘(台南孔廟) 및 안평고보(安平古堡), 초칸로(赤崁樓), 역재금성(億載金城), 사전무사원(祀典武廟)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역사 문화 특색 외에도 타이난은 풍부한 자연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바닷가를 따라 자리한 염전과 홍수림(紅樹林), 백로(白鷺鷥) 등 조류 생태 및 시리아국가공원 내의 관조링 온천, 동산의 아라비카 커피까지 다양한 관광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타이난 테마여행 - 역사를 따라 걷는 산책길 노선에서 안핑(安平) 문화 노선, 해변 생태 노선, 피로를 풀어주는 온천 노선을 추천하여 다양한 모습의 타이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안로 일대에서 타이난의 특색 있는 옛 거리를 걸으면서 풍부한 예술 및 문화를 느낄 수 있으며, 역사도시의 이채로운 낮과 밤 풍경도 상당히 흥미롭다.

타이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뷰 타이난 관광여행국 국장 천천안(陳俊安)

타이난은 어떤 도시일까? 타이난시 관광여행국 천천안 국장은 해외친구들에게 타이난을 소개할 때 늘 타이완 문학가의 말을 인용한다. “타이난은 꿈, 일, 연애, 결혼,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렇듯 타이난은 생활하기 좋은 도시이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이다.

천국장에 따르면, 타이난은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역사교적이 가장 많고 농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생태환경, 농특산물, 전통음식, 향촌풍물, 종교문화 등 풍부하고 다원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타이난은 유일하게 타이완 3개 국가풍경구와 국가공원들 모두 보유한 도시이다. 또한 2011년, 여행장지 미술상은 타이난을 타이완 3성급 여행도시로 평가하였다. 이는 타이난이 문화관광발전에서 세계적인 경쟁자재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천국장은 처음 타이난에 온 외국관광객에게 3개 여행노선을 강력 추천한다. 이 노선들은 여행장지 미술상의 평가에 근거하여 기획된 것으로 외국관광객에게 가장 적합하면서도 타이난의 관광특색을 대표한다. 3개 노선은 「역사를 따라 걷는 타이난시 고적탐방 노선», 「해변 생태 노선», 「안핑(安平) 문화순례 노선」으로 관광버스 2개노선이 이 세 곳을 모두 경유하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은 가장 편리하고 자세하게 타이난의 역사풍물을 둘러볼 수 있다. 타이완 관광국이 최근 한국에서 홍보한 단편 영화에서 특별히 타이난을 배경으로 선택한 것만 봐도 타이난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타이난은 5곳의 국제표준골프장과 수많은 골프연습장이 있다. 타이난의 기후는 비교적 온난하기 때문에 겨울여행지로 적합하며, 현재 이미 많은 한국의 골퍼단체들이 타이난에서 골프를 즐긴다. 낮에는 여러 다른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밤에는 향촌의 전원생활을 체험하거나 도시의 방문화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이난시는 비록 국제적으로 변화한 도시는 아니지만, 진정한 타이완의 자연, 인문역사,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다른 도시가 대신할 수 없는 특색있는 즐길거리들로 넘쳐난다고 천국장은 강조하였다. 「타이완을 알려면 타이난부터!」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께 타이난에서 타이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체험해보시길 바란다.



타이난 관광여행국 국장 천천안(오른쪽)과 본 지 왕진옥 고문(왼쪽)

역사를 따라 걷는 타이난시 고적탐방 노선



1

타이완 문학관 (台灣文學館) → 타이난시 경찰국 (台南市警察局) → 가남농전수리회 (嘉南農田水利會) → 타이난 공자묘 (台南孔子廟) → 영화궁 (永華宮) → 애국부인관 (愛國婦人館) → 무덕전 (武德殿)

타이난 공자묘에서 출발

타이난에 처음 온 여행객이라면 특별히 타이난 공자묘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이 곳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여행객에게 특별한 친근감이 있는 곳일 것이다. 타이난의 공자묘는 타이완 제 1의 공자묘로 건축형식이 굉장히 우아하며, 휴일에는 예술 문화 활동 등이 자주 열린다. 공자묘의 맞은편 한 길기에는 타이난식 간식거리와 특색 있는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어 천천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시청부(市政府) 앞길과 남문로(南門路)의 입구 근처에는 낡은 집을 카페로 재건한 「좁은 문 커피 (窄門咖啡)」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한 사람만이 드나들 수 있는 좁은 골목에 위치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굉장히 특색 있는 곳이다.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1916년에 지어진 타이완 문학관으로 원래는 타이난시 정부가 들어서 있었으나, 이후에 건물이 오래되어 새로 수리한 후 박물관으로 사용하였다. 건축물은 상당히 아름답고 분위기가 있으며, 박물관 안에 카페를 운영하여 음료 및 간단한 음식 등을 제공한다.



타이난 공자묘 (台南孔子廟)

☎ 타이난시 남문로 2호
(台南市南門路 2 號)
☎ +886 6 221-4647
⌚ 8:30-17:00

타이완 문학관 (台灣文學館)

☎ 타이난시 중정로 1호
(台南市中正路 1 號)
☎ +886 6 221-7201
⌚ 화요일 ~ 일요일 9:00-21:00 (월요일 휴관)

좁은 문 커피 (窄門咖啡)

☎ 타이난시 남문로 67호 2층
(台南市南門路 67 號 2 樓)
☎ +886 6 211-0508
⌚ 월요일 ~ 금요일 11:00-23:00

중경사 (重慶寺)

☎ 타이난시 중정로 5 골목 2호
(台南市中正路 5 巷 2 號)
☎ +886 6 223-2628

타이난 시내는 천천히 산책하며 고적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타이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초기의 개발도시로 서양식 건축과 전통적인 중국 민남식 건축, 사원 등을 포함한 많은 역사적인 건축이 남아 있으며, 일제통치 시대의 서양식 건축 등도 있다. 이러한 건축들은 시 중심에 집중해 있으며, 시정부는 이 일대에 3 곳의 산책노선을 계획하였다. 산책길은 약 1 시간 정도 소요되며 일정을 정하여 골목골목을 천천히 돌아본다면 타이난의 역사적인 풍경의미를 듬뿍 느낄 수 있다.



2

산림사무소 (山林事務所) → 중경사 (重慶寺) → 임백화점 (林百貨) → 토지은행 (土地銀行) → 정씨가 묘 (鄭氏家廟) → 태평경교회 (太平境教會) → 타이난 측후소 (台南測候所) → 천단 (天壇)

다른 시대의 역사 건축 보기

타이완 문학관을 나와 중정로 (中正路) 에서 우애제 (友愛街) 쪽으로 돌아서면 바로 그 곳에 그 이름도 유명한 「도소월 땀즈멘 (度小月擔仔麵)」 인 오래된 맛집이 자리하고 있으니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우애거리 (友愛街) 에서 충의로 (忠義路) 쪽으로 걸어가면 길가에 서로 다른 시대의 역사 건축물을 만날 수 있으며, 200 년전의 사원부터 80, 90 년대의 낡은 집까지 모두 자리하고 있어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특별한 곳은 중경사로 타이난에서 가장 유명한 월하노인 (月老) 을 모신 사원이다. 월하노인은 중국의 사랑의 신으로, 이 곳은 떠나간 연인의 마음을 붙잡는 곳으로 유명하며 타이완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볼 수 있는 곳이다.



3

만복암조장 (萬福庵照牆) → 사전무묘 (祀典武廟) → 대천후궁 (大天后宮) → 츠칸로 (赤崁樓)

전통신앙의 집중지

이 노선은 타이난의 유적 및 역사 건축의 집중지로 근처에 전통적인 맛 집들까지 더해져, 산책길 중 가장 추천하는 노선이다.

츠칸로는 타이난 역사의 지표로 오늘날까지 30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누각 안에는 전통신앙 중 고사 (考試) 의 신으로 불리는 문창각 (文昌閣) 이 자리하고 있어 매 번 시험기간이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배를 하곤 한다. 또한 기념품 상점에서 판매하는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 연필 (魁星筆)」 은 시험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길상 (吉祥) 물로 여겨져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대천후궁 역시 30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타이완 민간 신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마조 (媽祖)」 를 모시고 있어 향불이 끊이지 않는다. 그 외, 이 곳에도 사랑의 신인 월하노인을 모시고 있으며,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는 남녀의 애정을 더 돈독하게 해준다고 전해져, 현재 연애 중인 많은 커플들이 찾아와 순조로운 애정관계 유지와 결혼을 빌곤 한다.

300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사전무묘에는 타이완의 무신 (武神) 인 「관우 (關羽)」 를 모시고 있다. 충의 (忠義), 신용 (信用) 을 수호하는 이미지로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참배하며,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모시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사원 안에 수 많은 역사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곳의 월하노인은 짝사랑을 하거나, 마음에 둔 누군가를 사랑에 빠뜨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한다.



도소월 땀즈멘 (度小月擔仔麵)

☎ 타이난시 중정로 16 호 (台南市中正路 16 號)
☎ +886 6 2231-744
☎ 11:00-24:30

츠칸로 (赤崁樓)

☎ 타이난시 민족로 2 단 212 호 (台南市民族路二段 212 號)
☎ +886 6 220-5647
☎ 8:30-21:00

대천후궁 (大天后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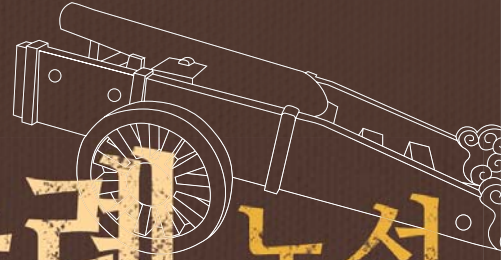
☎ 타이난시 용복로 2 단 227 골목 18 호 (台南市永福路二段 227 巷 18 號)
☎ +886 6 221-1178
☎ 5:30-21:00

사전무묘 (祀典武廟)

☎ 타이난시 용복로 2 단 229 호 (台南市永福路二段 229 號)
☎ +886 6 229-4401
☎ 8:30-21:00

(安平)

안핑 문화순례 노선



안핑의 역사와 오래된 건축물

타이완은 일찍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으며 당시 네덜란드인은 안핑에 많은 건축물들을 건설하였다.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타이완의 첫 성(城堡) 「러란저성(熱蘭遮城)」은 지금의 「안핑고성」로, 이 곳은 원래 네덜란드인이 건축한 성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오래된 용수나무들과 얼룩덜룩한 성벽만이 남아 있다. 게다가 현재의 안핑고성의 서양식 건축물은 일제시기 재건축된 것으로 전체 정원 내의 유적 기념관 및 전망대, 역사공원 등의 관람을 통해 과거 타이완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전망대에 올라 시원하고 탁트인 넓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안핑고성 정면에 위치한 「러란저청 박물관」에는 전체적인 안핑문화 발전을 전시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발굴한 유물 사료에 현대의 시청각 설비를 설치하여 안핑 및 타이완의 역사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러란저청, 덕기양행, 동흥양행(東

興洋行) 등의 전통 건축물의 실제 축소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고성(古堡)의 길을 따라 걸으면 「덕기양행」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이곳은 현재의 「타이완 개척사로 밀랍관(台灣開拓史料蠟像館)」으로 타이완의 초기의 생활 모습 및 덕기양행의 역사를 밀랍으로 만들어 전시하였다. 이 곳을 관람할 때 복도 천장과 옥상의 장식부분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당시의 네덜란드인의 건축 미학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덕기양행의 뒷편에는 생태 및 건축가치를 지닌 「안핑수옥」이 자리하고 있어 가옥과 식물 생태가 결합된 기이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곳은 원래 용수나무(榕樹)가 자라난 황폐한 창고였으나, 후에 현지 대학 건축팀이 경관 예술구역으로 계획하였고 여행객들이 나무 집의 위 아래를 왕래할 수 있도록 나무 길을 제공하여 대자연의 예술창조인 기이하고 환상적인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안핑(安平)은 타이완의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이 곳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 감상 외에도 바다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안핑고성(安平古堡) → 러란저성박물관(熱蘭遮城博物館) → 덕기양행(德記洋行) → 안핑수옥(安平樹屋) → 안핑 옛 거리(安平老街) → 관석전망대(觀夕平台)



옛 거리에서 맛보는 전통 간식거리

여러 유적지를 둘러 보았다면 다시 안핑고성 쪽으로 돌아가 옆의 연평거리(延平街)를 구경할 수 있다. 연평거리는 「안핑 옛 거리」라고도 불리며, 네덜란드인이 제일 처음으로 정비한 거리이다. 거리 양 옆으로는 많은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고 옛날 그대로의 건축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정부는 이 근처 일대를 「안핑상권(安平商圈)」으로 계획하였다. 여행객들은 이 곳에서 옛날식 잡화점을 구경할 수 있으며, 검은콩 두부(黑豆花) 및 새우과자(蝦餅), 과일말린, 새우롤(蝦捲) 등의 전통적인 간식거리도 맛 볼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하는 해변가 석양

배불리 먹었다면 오후를 틈타 택시를 타고 「관석 전망대」에 도착하여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이 곳은 백년 등대와 양쪽의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숲(防風林)이 결합하여 더욱더 완전한 초록의 아름다운 시각효과를 내며, 눈 앞에는 끝없는 푸른 빛 바다가 펼쳐져 있다. 특히 새벽 일출과 석양 황혼 때에는 하늘의 구름 색이 천변 만화로 풍부한 경관을 이뤄내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빠져 든다.

안핑고보(安平古堡)

☎ 타이난시 안핑구 국승로 82 호
(台南市安平區國勝路 82 號)
☎ +886 6 226-7348
🕒 08:30-17:00

러란저성(熱蘭遮城博物館)

☎ 타이난시 안핑구 국승로 82 호
(台南市安平區國勝路 82 號)
☎ +886 6 226-7348
🕒 8:30-17:30

덕기양행(德記洋行〈台灣開拓史料蠟像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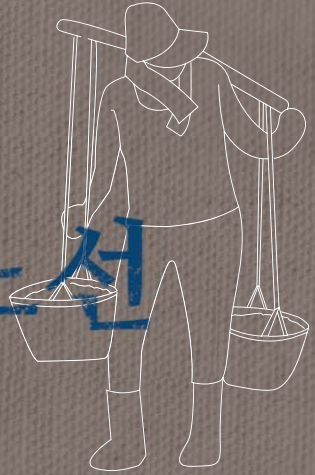
☎ 타이난시 안핑구 고보거리 108 호
(台南市安平區高橋街 108 號)
☎ +886 6 391-3901
🕒 8:30-17:30

안핑수옥(安平樹屋)

☎ 덕기양행 뒤편

해변 생태 노선

노선



남부 타이완만의 좋은 날씨에 타이난 칠고(台南七股) 등지 바다의 최고 지리환경이 더해져 염업(鹽業)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 칠고 및 장군(將軍) 등의 지역을 걸으면 넓은 바다와 흰 눈처럼 하얀 소금 외에도 풍부한 습지생태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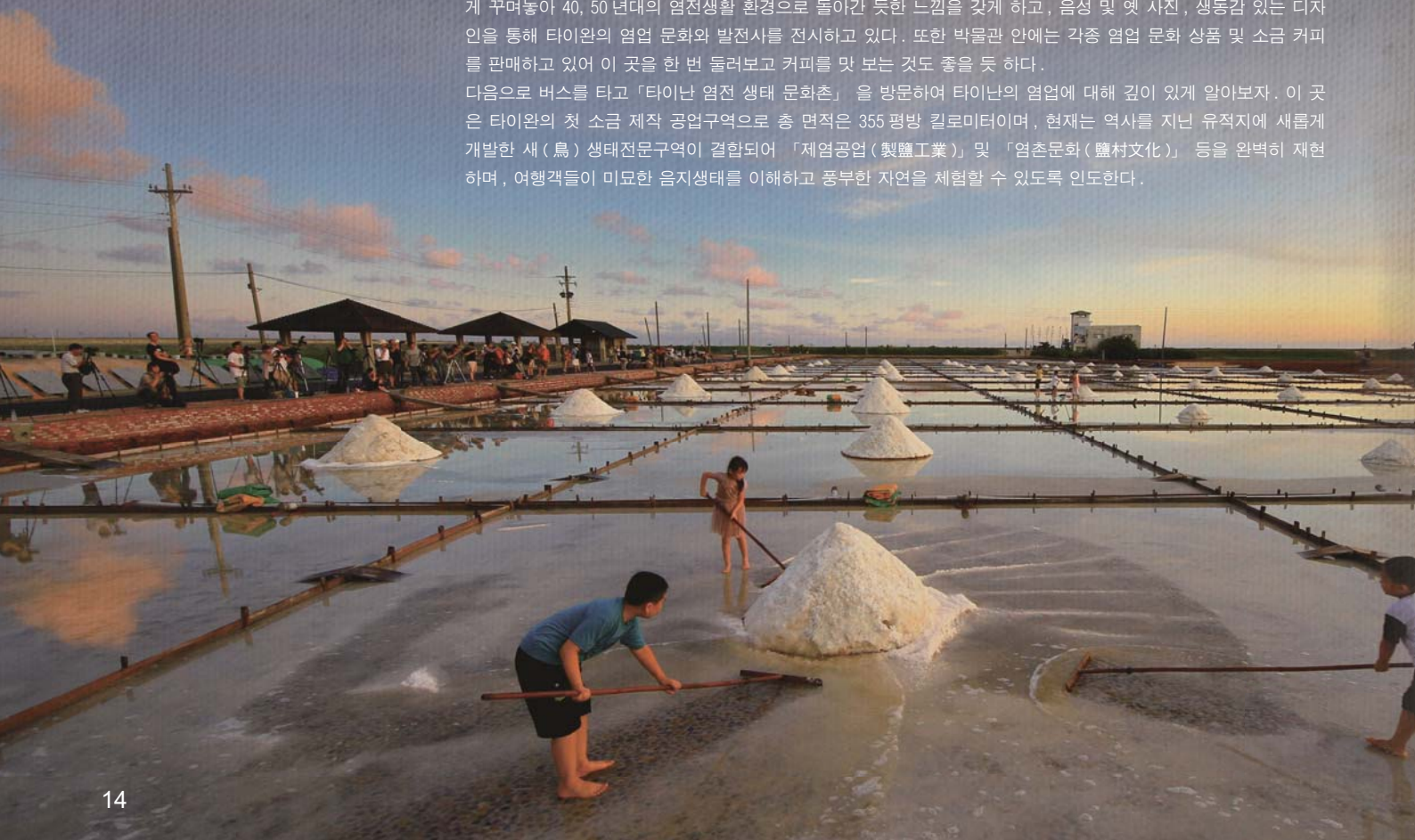


칠고염산(七股鹽山)→타이완소금박물관(台灣鹽博物館)→염전 생태문화촌(鹽田生態文化村)→저어새 생태전시관(黑面琵鷺生態展示館)→마사구 해변휴양지(馬沙溝濱海休憩區)

과거 염업의 매력을 느껴보자

타이난의 해변지역을 관광한다면 먼저 「칠고 소금산」에 가볼 것을 권한다. 이 곳은 과거 타이완의 가장 큰 소금을 말리는 장소였다. 지대면적은 1평방 킬로미터로 약 6층 건물 높이의 소금산이 우뚝 솟아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소금 문화 공원 지역(鹽文化園區)으로 계획되었다. 공원 내의 「타이완 소금 박물관」 건축외관은 멀리서 보면 마치 2개의 백색 금자탑이 염전 안에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4층 건물의 박물관은 정교하게 꾸며놓아 40, 50년대의 염전생활 환경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음성 및 옛 사진, 생동감 있는 디자인을 통해 타이완의 염업 문화와 발전사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안에는 각종 염업 문화 상품 및 소금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 이 곳을 한 번 둘러보고 커피를 맛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다음으로 버스를 타고 「타이난 염전 생태 문화촌」을 방문하여 타이난의 염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자. 이 곳은 타이완의 첫 소금 제작 공업구역으로 총 면적은 355평방 킬로미터이며, 현재는 역사를 지닌 유적지에 새롭게 개발한 새(鳥) 생태전문구역이 결합되어 「제염공업(製鹽工業)」 및 「염촌문화(鹽村文化)」 등을 완벽히 재현하며, 여행객들이 미묘한 음식생태를 이해하고 풍부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희귀 조류의 생태를 깊게 알아보자

타이완 남부는 많은 희귀 조류가 한 계절을 지내는 지역으로 아름답고 희귀한 조류의 모습을 감상하고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싶다면, 택시를 타고 「저어새 생태 전시관」으로 향할 수 있다. 전시관은 저어새 주요 서식지 범위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물 위에 위치하여 조형이 상당히 특수하다. 내부에는 전시실 구역과 생태(生態) 영상실, 경관 전망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시공간의 주제는 저어새를 위주로 저어새의 생명사 및 습지생태, 보육 운동 등을 포함한다. 이 곳에서 저어새의 생태정보 및 표본전시를 감상할 수 있으며, 단체(15명 이상) 일 경우 영상 감상 및 가이드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하늘처럼 파란 바닷가의 매력을 체험하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칠고에서 하루를 머물고, 다음날 「마사구(馬沙溝)」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을 추천한다. 이 곳은 어장과 염전, 모래섬이 가득한 전형적인 어촌으로, 특히 황혼이 질 때에는 해안가에 저녁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어선(漁船)이 바다에 떠 있는 모습과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이 곳에 문을 연 해수욕장에 바람을 막는 나무 숲(防風林)과 모래섬의 해안선, 널리 펼쳐진 염전의 풍광, 떼를 지은 백로(白鷺鷥)까지 모두 풍부한 관광자원을 구성한다. 「마사구 해수욕장(馬沙溝海水浴場)」은 매년 5월에 개방하며 바베큐 구역 및 캠핑 구역, 물놀이 구역, 조류 감상 구역, 수상 오토바이와 바다 관람 제방,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원화된 현대적인 휴양 장소이다. 여행객들은 한여름에 이 곳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하거나 나무 숲에서 바비큐를 즐기는 등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석양 아래 산책을 하며 저녁 노을과 날아가는 백로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칠고 소금산(七股鹽山)

☎ 타이난시 연청리 66 호
(台南市鹽埕里 66 號)
☎ +886 6 780-0511
Ⓢ 9:00~18:00, 겨울: 8:30~17:30

타이완 소금 박물관(台灣鹽博物館)

☎ 타이난시 연청리 69 호
(台南市鹽埕里 69 號)
☎ +886 6 780-0990
☎ www.taiwan-salt.com.tw
Ⓢ 월요일 ~ 금요일: 9:00~17:00,
토요일 ~ 일요일: 9:00~17:30,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기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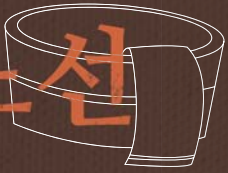
마사구 해수욕장(馬沙溝海水浴場)

☎ 타이난시 평사리 140 호
(台南市平沙里 140 號)
☎ +886 6 793-1155
☎ www.m-s-g-lido.com.tw
Ⓢ 월요일 ~ 금요일 10:00~19:00,
토요일 ~ 일요일 9:00~20:00

타이난시 염전 생태문화촌(台南市鹽田生態文化村)

☎ 타이난시 대중거리 101 항 12 호
(台南市大眾街 101 巷 12 號)
☎ +886 6 284-0073
Ⓢ 8:00~17:00

피로를 풀어주는 온천 노선



관즈링온천(關子嶺溫泉) → 수화동원(水火同源) →
홍예공원(紅葉公園) → 동산커피 도로(東山咖啡公路)

시라아국가풍경공원(西拉雅國家風景區)에서 피로를 풀어주는 편안한 온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관즈링(關子嶺)에는 세계에서 드물게 있는 진흙 온천이 있으며 샘물에 특수 광물질(礦物質)이 포함되어 있어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뛰어나 하늘아래 영험한 온천이라는 명예를 얻었으며, 베이토우(北投) 온천과 양명산(陽明山) 온천, 사중계(四重溪) 온천들과 함께 타이완 4대 온천으로 불린다. 관즈링의 온천은 감성탄산천(鹼性碳酸泉)에 속하며 풍부한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온천을 한 후에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난다. 다만, 온천은 진흙탕 상태이므로 먹을 수는 없다.

관즈링 온천구역의 잘 정리된 보도를 따라 걸으면 진흙 온천의 근원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 근처에는 많은 전통적인 온천 호텔들이 위치하며, 산과 가까운 다른 한 면에는 새롭게 성립된 현대적인 온천여관 및 휴양회관이 자리한다. 현재 이곳의 온천여관의 대부분이 개인탕과 공용탕을 구비하고 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여행객의 편리를 위해 비교적 값싼 진흙을 제공하여 여행객들이 탕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 또는 신체에 먼저 마사지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용 및 피부 보호 효과를 높인다.

관즈링에는 온천 외에도 근처 특색 있는 경관과 산책길이 있다. 비교적 유명한 「수화동원」은 6개의 계곡 지층을 통과한 땅 속의 자연 가스가 바위를 따라 샘물과 혼합되어 웅출하며, 마치 불꽃이 수면 위에서 타오르는 듯한 경관을 연출한다. 수화동원 근처에는 아름다운 「홍예공원」으로 통하는 또 다른 산책길이 있으며, 홍예공원은 관즈링공원(關子嶺公園)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량의 붉은 단풍나무와 공작단풍이 심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그 외에도 나비가 가장 좋아하는 꿀을 가진 식물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봄에서 초여름에 이 곳을 방문한다면 온 공원 안에 나비가 춤추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관즈링 근처 또 한 곳의 유명지는 바로 「동산커피도로」이다. 도로(175번 현도)를 따라 가면 많은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커피를 음미하며 농촌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동산커피는 전 세계 커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당한 기후와 수질, 일교차들이 더해져 타이완의 가장 유명한 커피 생산지가 되었다. 도로 전체에 아름다운 풍경과 특색 있는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어 여행객들이 온천 외에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관즈링 온천(關子嶺溫泉)
㊟ 타이난시 관령리 동북방 침두산 정상(台南市關嶺里東北方枕頭山頂)

홍예공원(紅葉公園)
㊟ 타이난시 관즈링 온천구역(台南市關子嶺溫泉區內)

수화동원(水火同源)
㊟ 타이난시 관즈링풍경구역 내(台南市關子嶺風景區內)

동산커피도로(東山咖啡公路)
㊟ 타이난시 고원촌 175호 도로와 174호 도로사이(台南市高原村的175號公路和174號公路上)





88 안평 노선

타이난시

타이완 관광셔틀 노선



타이난을 여행할 때 최고의 교통수단은 「타이완 관광셔틀 (台灣好行)」 버스이다. 관광청은 「88 안평 (安平) 노선」 과 「99 타이장 (台江) 노선」 두 노선을 기획하여 관광객 들은 타이난의 역사, 인문, 해양생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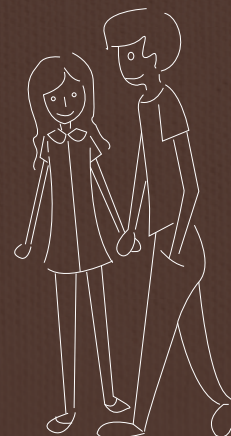
티켓 구입 및 시외교통 정보

티켓	구간별 탑승 시마다 대인 : 18元 (18TWD), 소인 : 9元 (9TWD) [99 타이장 (台江) 노선] 확장 구간 : 염전생태문화마을, 치구 (七股) 소금산 구간 이용시, 한 구간 비용 추가 지불.
티켓 구입처	타이난 기차역 앞 버스 대합실의 까오슝운수 남쪽게이트 안내 데스크에서 구매하거나 버스 탑승 후 기사에게 직접 구입.
문의전화	타이난시청 부성 (府城) 관광안내전화 : +886 6 390-1175 까오슝 (高雄) 운수 전화 : +886 6 221-9177 업무시간 : 09:00~17:00

참고 : 본 노선도는 약도 (주요 관광지만 표시) 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www.taiwantrip.com.tw/Main/Lang/?redirect=/About/&lang=ko-kr



99 타이장 노선





특색있는
거리

(海安路)

(神農街)

해안로, 신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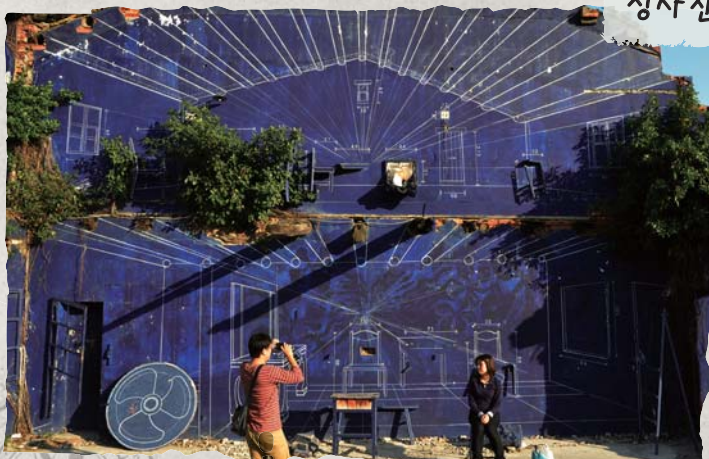
역사 깊은 도시 타이난은 타이완에서 옛 건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며, 특히 해안로와 신농가는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다. 해안로의 본 이름은 「오조항 운하 (五條港運河)」 이고, 당시 물자를 교류하던 곳으로 사람과 화폐의 왕래가 왕성했던 상업도시였다. 신농가의 옛 지명은 「북세가 (北勢街)」 이고, 오조항 상권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리의 너비가 4미터 정도로 넓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가장 변화했던 거리이다. 지금은 예전처럼 상업활동은 없지만, 인파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여유로움과 문예활동을 즐기는 젊은 예술가들이 오가고, 요즘은 관광객들이 이곳 옛 거리를 거닐면서 옛 건물에 남아있는 문화의 정취를 느낀다.



- ① 철꽃이 피었다
- ② 청사진
- ③ 해안이 밝아오르다
- ④ Line House
- ⑤ 태성 라일라게
- ⑥ 무지개가 떴다
- ⑦ 소만 식당
- ⑧ 태고 101
- ⑨ 57 아트스튜디오
- ⑩ 강수호해안로점
- ⑪ 화원 야시장
- ⑫ 타이난역



청사진 (blue-print)



건축가 유국창(劉國滄) 작가의 작품으로, 일상적인 투시관념을 건축 설계를 이용해 낮은 벽에 파란색으로 그려넣어 3D 시각효과를 연출했다. 평평한 낮은 벽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기구를 놓아 마치 시간이 갑자기 멈춰버린, 실제로 어느 가정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듣게 한다.



하나의 거리는 미술관이 되기도 하고, 옛 건물의 벽은 예술가의 가장 훌륭한 캔버스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거리는 현실세계를 벗어난 듯 하지만, 반대로 타이난 해안로에 생생하게 그 모습을 나타낸다. 휴일에 모여든 관광객들은 이런 공공예술작품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지금은 해남로의 가장 인기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운하가 있던 자리는 도로로 메워졌고, 과거 해안을 드나들던 상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지하상가들이 들어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공때부터 난관에 부딪혀 공사가 10 여년이나 늦춰졌다. 빈 집들과 공사로 인해 형성된 지형이 해안로 양쪽 거리경관을 망치고 있었다. 난잡한 거리경관으로 인해 한때 번성했던 해안로와 신농가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타이난 21 세기 도시발전협회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두소현(杜昭賢)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계획안을 시청에 제출했다. 많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거리 양쪽에 창의적인 건물들을 지어 지금의 아름다운 거리풍경을 재현했다.

해안로 중간쯤 위치한 신농가는 이전 세대에서는 「북세가(北勢街)」로 불려졌고, 지금까지도 타이난 최고의 옛 거리로 남아있다.

길 양쪽으로 보이는 오랜 건물들은 모두 청대와 일제치하 시대의 것이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시에서 지정한 고적 「금화부(金華府)」, 「타이완 전국 개기약왕묘(開基藥王廟)」, 「영천가마」 및 「서불국(西佛國)」을 볼 수 있다. 해안로 예술거리 만들기 계획에 따라 신농가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옛 건물 안 한 칸엔 자그마한 미술관, 문예창작공방, 주막, 카페, 독특한 식당들이 생겨나고, 타지로 이주했던 현지 주민들, 지금은 반대로 많은 젊은 건축 꿈나무들의 순례지로 변모하고 있다.

철꽃이 피었다



요소수(廖小樹) 작가의 작품으로, 차가운 철근이 주된 창작의 소재이며, 옛 건물의 벽면을 빨간색으로 칠한 다음, 그 위에 일흔개의 하얀 철꽃 창문을 달아놓았다. 빨간색과 흰색이 서로 어우러져 강한 대비 효과를 내며 낮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들이고, 조명이 켜진 밤에는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Lin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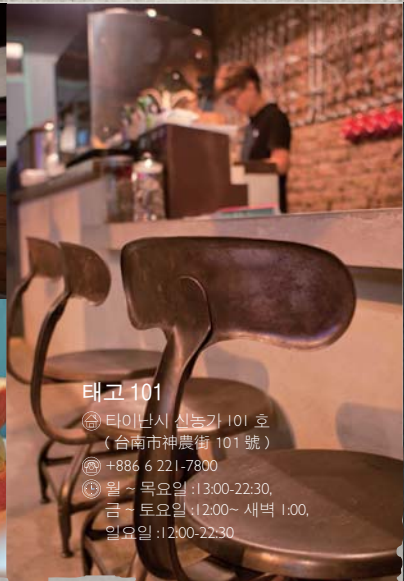
하얀 철근 소재를 이용한 임대현(任大賢) 작가의 창작품으로, 완성적이고 투명감 있게 밤을 구성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생활 속의 물건 중 선만 남는다면 사람들은 더욱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더 많은 환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해안이 밝아오르다



임건영(林建榮) 작가의 창작품으로, 해안로를 오가는 차량과 인파들이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고 파란 하늘과 구름과 따뜻한 전구인간을 감상해보길 바란다.





태고 101

Ⓧ 타이난시 신농가 101 호
(台南市神農街 101 號)
☎ +886 6 221-7800
⌚ 월 ~ 목요일 : 13:00-22:30
금 ~ 토요일 : 12:00 ~ 새벽 1:00
일요일 : 12:00-22:30

문화동네

복고적인 낭만은 느끼다

문예창작의 유행으로 해안로와 신농가와 더불어 이웃한 정흥가(正興街)도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 점점 「부성오조항구」 상권이 번성하고 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골목 안에 남아있는 옛 추억과 새로운 예술적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따사로운 햇빛이 비추는 오후에는 「무지개가 났다」 문예창작 상점을 구경해 보자. 이 곳에서는 문예창작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고, 브랜드에는 「창작은 마치 무지개를 본 것과 같이 마음 속 안락한 느낌을 표출해내는 아름다운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상점은 정흥가의 한 45년 된 낡은 건물에 위치해 있고, 1층에는 상품 전시와 판매, 2층에는 예술창작 작품을 전시해 놓았다.

정흥가를 나와 모퉁이를 돌아서 5분정도 걸다 보면 신농가 57 호에 자리한 「57 아트스튜디오」에 이르게 되는데, 이 작업실은 예술가 일곱 분이 모여 지은 것이다. 1층은 전시공간으로 예술가들의 작품

을 감상할 수 있고, 마당을 지나 뒤채에는 문예창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마당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가장 특별한 곳으로써, 이 곳에서 오래된 우물도 볼 수 있고, 옥외에 있는 이 작은 마당은 이미 전시공간으로 되어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진촬영 장소이다.

신농가 뒤쪽으로 끝까지 걸다 보면 모퉁이에 있는 「태고 101 카페」가 보이는데, 카페의 큰 창문은 밤낮 구분없이 모두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복고풍 가구들로 꾸며져 있고 두 층으로 구성된 카페 안에는 커피, 오후의 차, 와플, 샌드위치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피로로 지친 오후에 카페에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저녁엔 자리를 2층 옥외로 옮겨 하늘 높이 펼쳐진 신농가의 야경을 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57 아트스튜디오 (五七藝術工作室)
Ⓧ 타이난시 신농가 57 호
(台南市神農街 57 號)
☎ +886 6 225-7640
⌚ 수 ~ 금요일 : 18:00-22:30, 주말 : 15:00-22:30



무지개가 났다 (彩虹來了)
Ⓧ 타이난시 정흥가 100 호
(台南市正興街 100 號)
☎ +886 6 220-2868
⌚ 목 ~ 월요일 : 14:00-21:00, 휴무 : 화, 수요일



소만 식당 (小滿食堂)

이 식당은 계절마다 다른 메뉴를 선보인다. 모자가 타이난 전통 가정식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으로, 모친이 주방을 맡고 아들은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맡고 있다.

- ☎ 타이난시 국화가 3 단 47 호
(台南市國華街三段 47 號)
- ☎ +886 6 220-1088
- 🕒 수 ~ 일요일 :16:00-21:00, 휴무 - 월, 화요일



태성 과일라게 (泰成水果店)

70년 넘게 이어온 이 가게는 주로 주스와 각종 빙수를 팔고, 인기 품목은 멜론빙수이다. 반으로 지른 멜론을 용기로 쓰고 얼음을 담고, 멜론과 참외 과육을 공모양으로 파서 넣은 다음, 그 위에 연유를 뿌려 먹는데 여름엔 최고의 피서상품이다.

- ☎ 타이난시 정흥가 80 호
(台南市正興街 80 號)
- ☎ +886 6 228-1794
- 🕒 월 ~ 금요일 :15:00- 새벽 1:30,
주말 :14:00- 새벽 1:30



TAIKOO 태고

태고에서는 벨기에의 각종 맥주 뿐만 아니라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서양 모던 가구들을 만나볼 수 있고, 큰 창문이 있어 밖에서도 가게 안의 모던한 인테리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1,2층에서 아늑한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맥주 한잔의 여유를 즐겨보도록 하자.

- ☎ 타이난시 신농가 94 호
(台南市神農街 94 號)
- ☎ +886 6 221-1053
- 🕒 월 ~ 목요일 :18:00- 새벽 2:00,
금요일 :18:00- 새벽 3:00,
주말 :16:00- 새벽 3:00



늦은 밤 야식의 매력

해안로와 신농가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왓지떨릴 분위기를 느껴보자! 같은 예술거리 풍경이지만 저녁에 조명이 더해지면 한바탕 쇼를 보는 것과 같다. 신농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낮에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던 상점 간판등이 하나둘씩 꺼져 특별한 분위기를 낸다. 배가 고프다면 다시 해안로로 와서 구이와 달달한 전통 탕 등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타이완 야시장을 체험하고 싶다면 화위로(和緯路) 방향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타이난 음식의 보고 화원 야시장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타이난 밤문화를 두루 경험할 수 있다.



화원 야시장 (花園夜市)

관광객이 주관한 2010 타이완 10대 야시장 중 영예의 최우수 야시장으로 뽑힌 타이완 화원 야시장은 매주 목토일요일에 문을 연다. 선거유세 현장을 방불케 하는 이 곳은, 상점마다 높이 솟은 깃발이 하늘 가득 장식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원하는 상점을 찾을 수 있다.

- 전통 스테이크, 자러루웨이(加熱滷味), 뽕찜루웨이(冰鎮滷味), 미니 샤브샤브, 센웨이지(鹹水雞), 심심한 과일, 스파게티 및 전통 면요리 등 각종 길거리 음식이 즐비해 있다.
- ☎ 타이난시 해안로(海安路)와 화위로(和緯路) 교차로 입구
- 🕒 목, 토, 일요일 저녁



청심구이 (淸心燒烤)

해안로에는 타이난시 유명한 구이집 거리가 있는데 이 청심구이집은 널리 인기를 받고 있다. 반육외 좌석은 흡사 홍콩의 다이파이동에 와 있는 느낌을 들게 한다.

다양한 음식 빛깔, 합리적인 가격,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신선한 구이와 닭, 소, 돼지고기, 해산물 등 여러 종류의 맛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 ☎ 타이난시 해안로 2 단 333 호
(台南市海安路二段 333 號)
- ☎ +886 6 228-1161
- 🕒 18:00- 새벽 1:30



경탄일식 꼬치구이 (鯨吞燒串燒酒場)

넓은 건물을 개조하여 지은 가게로, 일본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이집 같은 외관과 문 앞에 흥등을 걸어 놓아 더욱 멋이 느껴진다. 복고풍으로 장식한 가게 안에서는 닭꼬치, 어묵요리, 꼬치, 야채구이 등 일식 구이를 맛볼 수 있다.

- ☎ 타이난시 해안로 2 단 321 호
(台南市海安路二段 321 號)
- ☎ +886 6 228-9911
- 🕒 일 ~ 목요일 :17:30-00:00, 금 ~ 토요일 :17:30-1:00



강수호 해안로점 (江水號海安路店)

해안로 지점은民國 20년에 창립해 3대째 이어오고 있다. 오랜 전통 맛을 지켜오고 있는데, 여기에 오면 따끈따끈한 쌀떡죽을 꼭 먹어야 한다. 용안육과 참쌀을 넣고 오랜시간 끓인 쌀떡죽은 달콤한 향과 입 안에 넣으면 더욱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 ☎ 타이난시 해안로 3 단 55 호
(台南市海安路三段 55 號)
- ☎ +886 6 226-2629
- 🕒 화 ~ 일요일 :12:00 ~ 23:00, 휴무 - 월요일



고속철도

+ 일반열차로 더블여행

고속철도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으로 전 타이완 여행거리를 좁혀 1일 관광생활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주제에서는 고속철도 및 일반 열차, 「타이완 호행(台灣好行): 관광전용버스」 등으로 갈아타며 편안하게 여행하도록 안내한다.

타이완 일주여행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서부 쪽 관광지는 타이완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타이완을 일주하는 각 노선의 열차들은 타이완의 크고 작은 도시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분구간열차(分區間車) 및 복흥호(復興號), 영광호(莒光號)와 자강호(自強號) 등 여러 등급의 열차가 있어 여행시간 및 목적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아리산선(阿里山線), 지지선(集集線), 평시선(平溪線), 내완선(內灣線) 등의 단구간을 운행하는 소형열차가 운행되어 처음으로 타이완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는 여유 있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열차이다.

타이완 서부를 중심으로 도는 고속철도는 타이완 남부와 북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또는 단시간에 타이완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적당하다. 현재 고속철도는 타이페이(台北), 반차오(板橋), 타오위엔(桃園), 신주(新竹), 마오리(苗栗), 타이중(台中), 장화(彰化), 윈린(雲林), 자이(嘉義), 타이난(台南), 조잉(左營) 등 타이완 서부에 11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다. 최고시속 300km의 속도로 타이완 서부를 지나고 있으며 빠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완 철도는 보다 편안한 좌석과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철도 도시락은 타이완 사람들에게는 여행의 묘미이다. 타이완 고속철도는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무선인터넷 및 음료, 쇼핑 등 열차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열차나 고속철도 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으며, 그 중 「타이완 하오싱(台灣好行)」 버스는 관광전용서비스로, 열차 및 고속철도 역에서 편리하게 탑승하여 유명관광지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하오(好行) 티켓세트가 출시되었으며, 가격은 약 타이완달러(NT) 180원에서 1000원 정도로 티켓에 적힌 유효기간 내에 횟수 및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버스 노선에 따라 탑승하여 타이완외곽의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더블열차 여행티켓(雙鐵周遊券)

고속철도와 타이완 열차가 연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더블 열차 여행티켓(雙鐵周遊券)」을 출시하였다. 여행객은 이 여행티켓을 가지고 상면에 적힌 유효기간 안에 횟수 제한 없이 타이완 철도 및 고속철도를 탑승할 수 있다.

타이완 철도

☎ www.railway.gov.tw

타이완 고속철도

☎ +886 2 4066-3000

☎ www.thsrc.com.tw

타이완 호행(台灣好行)

☎ www.taiwantrip.com.tw





台北平溪

타이베이 핑시

교통편 : 차를 타고 배두(八堵)역 또는 루이팡(瑞芳)역에서 핑시(平溪)선으로 같이탄다.

주변 여행코스 : 징통(菁桐)→핑시(平溪)→스편(十分)→호우퉁(猴硐)→루이팡(瑞芳)

핑시선은 국민당정부 초기의 분위기와 천등 문화가 남아있어서 고적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겐 제격이다. 핑시선 종점인 징통역부터 여행을 시작해보자. 기차에서 내려서 옛 기차역으로 가면 매달려 있는 죽통들이 보이는데 소원을 적어 죽통을 매달아 소원을 빌고, 철길을 따라서 「광업생활관」, 「모형궤도」, 「석탄 선별장」, 「흰 계단 일식숙박 단지」를 관람하면서 탄광산업의 흥망성쇠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신베이시(新北市) 지정 고적인 「태자 호텔」도 관람할 수 있다. 징통 옛 거리에 있는 「양씨 닭꼬치」와 「홍바오 광부식당」에서 전통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차역 뒤편에 위치한 「징통 옛 거리」에선 풍부한 생태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핑시역에서는 중화가(中華街)를 출발한 기차가 「싼강시(三坑溪)」철도를 지날 때마다 경적을 울리는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오후에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한 핑시 옛 거리에서 맛있는 흑돼지 소시지, 면차(麵茶)와 「홍꾸이(紅龜) 국수집」에서 면 요리를 맛보자. 앞으로 더 가다 보면 핑시 우체국 앞에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통이 있는데 친구들에게 엽서 한 장 써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그 다음으로 타이완에서 유일한 「문 앞을 지나가는 기차」가 있는 스펬역 옛길에 가보자. 철도길을 따라 걷다 보면 「타이완의 나이아가라 폭포」라 불리는 스펬 폭포에 이르는데, 다리 위에서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저녁 무렵 호우퉁역 앞에 오랜 전통을 이어온 맛집 「광부국수」과 「아샤(阿蝦) 옛날국수」를 맛보자. 뒤편에 있는 「고양이 마을」에 방문하면 순하고 귀여운 고양이들을 볼 수 있는데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어서 루팡역으로 장소를 옮겨 「룽펑투이(龍鳳腿: 어묵, 돼지고기 등을 섞어 두부피로 말아 만든 것)」, 「복이 소고기면(牛肉麵)」, 「임씨 후자오빙」을 저녁 메뉴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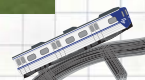
SPECIAL PLAN



루이팡



스편역



스편역



징통역

START!!



핑시역

타이완



대만유리관역

루강 옛 거리

고속철도 타이중역

START!!



彰化鹿港 장화루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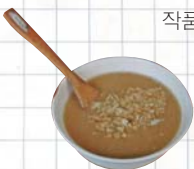
교통편 : 고속철도를 타고 타이중(台中)역에서 내려 장화현 루강구간 타이완하오싱 관광버스(台灣好行彰化縣鹿港線)로 갈아탄다.

주변 여행코스 : 루강 옛 거리(鹿港老街)→티엔호우궁(天后宮)→지우취 골목길(九曲巷)→루강민속문화박물관(鹿港民俗文化館)→타이완 유리관(台灣玻璃館)→유리사당(玻璃廟)

문학적 향기로 가득한 루강의 한 작은 마을을 한적하게 거닐거나, 청나라 민남식 건축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옛 거리에서 골동 장난감이나 수놓은 신발 등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예술품 상점을 구경하다 보면 루강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다. 옛 거리에는 전통음식들이 즐비해 있고, 많은 만두 가게에서는 서로 경쟁하듯 손님을 불러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아쩐(阿振) 고기만두」와 「용선생(老龍師)고기만두」가게가 가장 인기가 많다. 이 외에 50년 역사의 「용산 오징어 고기죽」과 정통 옛날 맛을 자랑하는 「동화 아채면차」도 빼놓을 수 없다. 청 대에 지어져 오랜 전통이 있는 「차저지(蔡澤記)」와 「위전자이(玉珍齋) 제과점」도 꼭 둘러봐야 한다.

길을 따라 앞으로 걸다보면 루강 3대 고적지 중 하나인 「티엔호우궁」을 볼 수 있는데, 옛 모습 그대로 화려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휴일이면 항상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어서 루강 제일시장 안에 위치한 「지우취 골목길」에선 구불구불한 신기한 공간체험을 할 수 있다. 중산로(中山路)와 민족로(民族路)에 위치한 「루강민속문화박물관」은 원래는 일제치하 시대에 루강의 유명한 부자인 고씨의 저택이었다. 박물관에는 청대부터 민국 초기까지 6천여 점의 루강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고 민중에게도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장빈(彰濱) 공업지구 방향의 차를 타고 「타이완 유리관」에 오면 타이완의 유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유리 예술가의 작품이 모여있고, 건물 안에 설치된 대형 유리만화경도 볼만하다. 유리관 옆에 자리한 타이완 유일의 유리사당 「후성궁(護聖宮)」에서는 유리 마조(천후)와 채색 유리 수문신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과 창의적인 면이 합쳐진 건축예술이다.



START!!

고속철도
조영역



屏東墾丁 핑동 켄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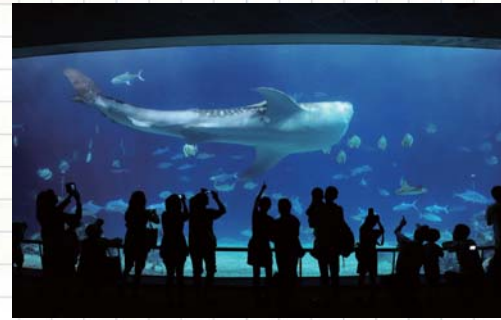
교통편 : 고속철도를 타고 조영(左營)역에서 내려 핑동현 켄딩구간 타이완하오싱 관광버스(台灣好行屏東墾丁快線)로 같이탄다.

추천코스 : 따평완(大鵬灣)→국립해양생물박물관(國立海洋生物館)→난완(南灣)→켄딩거리(墾丁大街)

타이완 남부는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 그리고 파란 하늘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핑동 켄딩을 여행하려면 우선 오전에 타이완 최대의 내만—따평완에 도착한다. 따평완은 타이완의 붉은 나무 숲을 경계 짓는 남계선이다. 이 지역 안에는 해안 동식물들로 붉은 나무숲의 경관을 이루고 습지에서 활동하는 계와 95종이 넘는 조류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따평완 풍경구에서는 돛단배, 통나무배 젓기 등 수상 레저활동이나 백사장에서 오프로드카의 재미를 즐길 수 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처청(車城)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박물관」에 오면 자연생태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타이완해역」과 3D 가상현실 「물 없는 수족관」을 관람할 수 있고, 이 밖에도 「산호왕국」관에서는 흰돌 고래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과 해저터널로 들어가 해양생물을 구경할 수도 있다. 해양생물관 안에는 6곳에서 야간숙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데 미리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오후에는 물놀이의 낙원인 「난완(南灣)」으로 가서 고운 모래가 길게 펼쳐진 백사장을 거닐거나 수영, 카누, 윈드서핑, 수상스쿠터, 고무보트, 비치발리볼, 스노클링 등 각종 해양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저녁에는 컬러문신, 개성 있는 상점과 PUB가 즐비한 왓지질한 켄딩거리를 구경하며 타이완 남부의 여유로움에 흠뻑 취해보자. 「웅장군(戎將軍)손만두」, 「뗏목지 돌판구이」, 「Mr. Hot핫도그」, 「우유커틀릿(炸鮮奶:우유, 설탕, 녹말가루, 버터 등을 넣고 튀겨 만든 것)」 등 여러 가지 길거리 음식들도 맛볼 수 있다. 또한 멕시코, 태국, 이탈리아식 바레스토랑에서 이국풍의 음식도 체험할 수 있다.



따평완역

팍랴오역



처청농회



난바오리역

형춘환승역



난완역



샤오완(켄딩)역





花蓮太魯閣

화롄 타이루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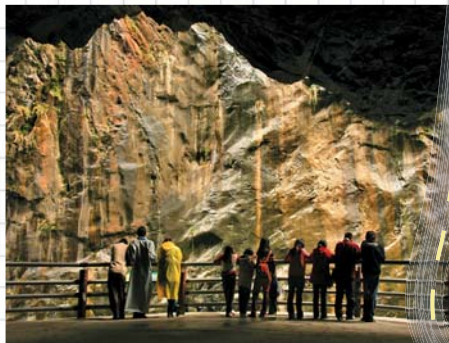
교통안내 : 타이티에(台鐵) 일반철도를 타고 화롄역에서 타이완하오싱(台灣好行) 타이루거 관광기차로 환승

추천코스 : 치싱탄(七星潭)→타이루거진입문(太魯閣牌樓)→사카당(沙卡嗶)→부뤄완(布洛灣)→옌쯔커우(燕子口)→주취동(九曲洞)→톈샹(天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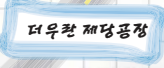
타이루거를 즐기려면 오전에 타이티에 철도를 타고 화롄역에서 타이완하오싱 타이루거 선으로 환승해 치싱탄으로 가보자. 「량탄자전거 도로」에서 보는 화롄은 실로 매력적이다. 타이루거에서는 1,070미터의 「타이루거 타이디보도」를 따라 삼림욕도 즐길 수 있다.

사카당보도를 따라가면 계곡물과 기암들이 부딪혀 음악을 연주한다. 부뤄완의 원주민특색 공원에 이르면 타이루거 개발과 타이아족의 인문 역사를 이해해보고 원주민 음식도 먹어보자.

점심식사 후 옌쯔커우보도를 따라 타이루거 협곡, 구혈, 용천혈 그리고 인디안 엘캐피텐을 볼 수 있다. 나선형의 주취동보도에서는 대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절벽, 암벽 단층 절리, 습곡 및 암벽동굴에 드리운 구름그림자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톈샹의 7급보탐 「텐핑타」와 겨울에 민개한 「매화화원」의 절경은 감탄을 자아낸다.



START!!



台東東部海岸 타이동 동부해안

교통안내 : 타이티에 철도를 타고 타이동 기차역에서 하차하여 타이완호오싱(台灣好行) 동부해안선 관광기차로 환승

추천코스 : 타이동 제당공장(台東糖廠)→싼린공원(森林公園)→푸강항구(富岡港口)→샤오예류(小野柳)→자루란(加路蘭)→더우란 제당공장(都蘭糖廠)→싼센타이 유락구(三仙山遊憩區)

타이동 동부해안을 즐기고 싶으면 오전에 타이동 기차역에서 타이완호오싱으로 갈아타고 푸강항구역으로 가보자. 오전 8시에는 활기찬 상인들의 수산시장 경매를 참관할 수 있다. 선박을 타고 바다로 나가 하안 파도위로 뛰어오르는 고래를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모미이다. 하루에 3번, 출항시간은 약 30분이다. 기암석들이 많은 샤오예류에서는 맑은 날 동쪽 32미터 밖의 워다오(綠島)를 볼 수 있다. 자루란에서는 표류하는 대형 목조장치를, 더우란의 신동제당공장에서는 목조조각, 어란석 및 철근 예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아메이족 창작품은 「Siky목조공방」과 수공예품점 「하오더바이」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바궁과하이 보도」를 지나 싘센타이섬에 가보자. 곳곳의 해식구, 피식혈, 해식주 그리고 바다와 하늘이 한 색으로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돌아오는 길에 타이동 휴양 삼림공원에서 목마함 바람막 숲과 목조전망대의 피파호 그리고 타이동 제당공장에서 목조와 장치 예술을 감상해보자. 원래 회사 모임장소로 설계되었다가 독특한 분위기의 커피숍으로 개조된 「당안실 커피」에서 한 잔의 음료를 마시며 타이동의 여유로움을 느껴보자.



타이완의 디자인을 선보이다

특색 있는
문화 창작 상점

타이페이의 골목골목을 깊숙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타이완의 분위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타이완의 문화 창작 상점(일명: 문창점)을 구경하지 않는다면 타이완의 디자인 실력을 더더욱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타이완의 골목 안에는 귀여운 디자인의 문창점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므로 여러분이 꼭 구경하길 바란다.



온사 (溫事)

시멘트와 목조로 이루어진 60년이나 된 오래된 저택은 작가이자 삽화가인 미리(米力)부부가 임대한 곳이다. 폐목재와 오래된 창문들, 낡은 목재바닥 등의 원료를 이용하여 3개월 동안 개조하였으며, 약 20평 정도의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잡화점을 오픈 하였다. 1층은 상품 전시 공간으로 부부가 일본에서 가져온 수공예 상품과 엄선한 타이완 현지 수공예 작은 소품들을 전시하여 지나간 시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 타이페이시 중산북로 1단 33 골목 6호
(台北市中山北路一段 33巷 6號)
- ☎ +886 2 2521-6917
- 🌐 www.studioos.com
- 🕒 12:00-19:00
- 🚉 MRT 타이페이역(台北車站)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거리.



【조통상권 條通商圈】 소개 :

오늘날 동쪽의 중산북로(中山北路)와 서쪽의 신생북로(新生北路), 남쪽의 남경동로(南京東路), 북쪽의 시민대도(市民大道)까지로 거리의 골목은 그리 크지 않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일본식 건축물과 작은 일식 식당 등을 볼 수 있으며, 운치있는 일본식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추천노선 : 온사(溫事) → 2조통 · 초록섬야상곡(二條通 · 綠島小夜曲) → 중산기독교교회(中山基督長老教會) → 청엽레스토랑(青葉餐廳) → 전장커피(典藏咖啡)

버섯 (蘑菇Booday)

남경서로(南京西路)를 천천히 걸다가 적봉거리(赤峰街)의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서면 지하철 녹지공원의 맞은편에 깔끔하면서도 디자인이 있는 작은 상점이 있다. 2층으로 이루어진 문창공간 「버섯 ; 모구(蘑菇)」은 광고 회사를 다니는 두 쌍의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1층은 T-SHIRT를 위주로 인문 수공예 상품을 전시하고, 2층은 조용히 커피와 차를 마시며 빵과 디저트, 좋은 책과 음악들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되어 있다. 벽에는 회화와 사진작품들이 걸려있으며, 모두 주인이 각지의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전시한 예술품들로 이 곳을 통해 세계의 창의성을 접해보기를 바란다. 이 외에도 「버섯」에서는 비정기적으로 강연회 및 워크숍, 음악회를 열어 예술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한다.

- ☎ 타이페이시 남경서로 25 골목 18-1 호 (台北市南京西路 25 巷 18 之 1 號)
- ☎ +886 2 2552-5552
- 🌐 www.mogu.com.tw
- 🕒 일요일~ 목요일 12:00-21:00, 금요일~ 토요일 12:00-22:00, 정기휴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 🚇 MRT 단수이(淡水) 또는 베이투우(北投) 선을 타고 중산역(中山站)에서 하차 후 도보 약 10분 거리.

【중산상권 中山商圈】 소개 :

MRT 중산역(中山站)에서 쌍련역(雙連站)까지의 거리로 녹색나무 길 양쪽으로는 웨딩샵이 쪽 이어져 있으며, 감각적인 유명명품점도 자리하고 있다. 중산 북로 골목으로 들어가 적봉거리 쪽으로 걷다 보면 귀여운 문창상점과 카페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 여유롭게 쉬었다 갈 수 있다.

추천노선 : 온버섯(蘑菇)→타이완호·점(台灣好·店)→미랑기카페(米朗琪咖啡館)→복합식 옷가게(bisou bisou)→타이페이집(台北之家)→요양치항장춘점(蟬鳴茶行長春店)



품목양행 (品墨良行)

품목양행은 용강거리(永康街)의 안 쪽, 조주거리(潮州街)에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며, 민가 사이의 특색 있는 상점으로 자세히 찾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큰 나무문을 밀고 들어가면 깔끔한 작은 정원이 있으며, 긴 의자에 앉아 상점에서 직접 구운 과자와 차를 마시며 천천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상점은 1층과 지하 1층 공간으로, 디자인 및 생활 잡화와 청은도자기(靑銀陶) 및 주인이 직접 수공 제작한 천 신발, 천 가방, 수첩, 생활잡지, 디저트 등을 전시한 전시기능과 결합하여 유기농 생활의 작은 문화 창작 세계를 나타내었다.

- ☎ 타이페이시 용강계 75 골목 10 호 (台北市永康街 75 巷 10 號)
- ☎ +886 2 2396-8366
- 🌐 www.pinmo.com.tw
- 🕒 화요일 ~ 일요일: 13:00-19:00, 월요일 휴무
- 🚇 MRT 루조중허선(蘆洲中和線) 또는 신장중허선(新莊中和線)을 타고 동문역(東門站)하차 후, 도보 약 10분 거리.

【용강상권 永康商圈】 소개 :

용강상권은 용강공원(永康公園)을 중심으로 용강거리, 리웨이제(麗水街), 조주거리, 부분 금화제(金華街), 거리입구의 신의로(信義路) 상점까지이다. 거리가 온통 인문 분위기로 점심식사 후, 커피를 마시거나 타이완 간식 맛 보기, 문화 창작상점 구경하기 등 여유롭게 다니기에 가장 적당하다.



- 추천노선 : 품목양행 (品墨良行) → 대음주식레스토랑 (大隱酒食) → 소화정문물시장 (昭和町文物市集) → 작은 자유 커피 (小自由咖啡) → 이요 천옷가게 (李堯布衣) → 여상식당 (呂桑食堂) → 다안선린공원 (大安森林公園)





VVG Something 호양본사 (好樣本事)

중세기의 우아한 분위기를 가진 「호양본사」는 약 10여 평의 작은 공간에 책과 잡화판매 및 전시 등을 하고 있으며, 미국 오락 홈페이지 Flavorwire.com 에 전세계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빨간 대문으로 들어서면 안 쪽에 정성스럽게 배열해 놓은 책꽂이의 책들과 작은 소품들이 있으며, 모두 하나 하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서점 뒤에는 2인용의 귀여운 좌석이 준비되어 있어 커피를 주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 타이페이시 충효동로 4 단 181 골목 40 번 13 호
(台北市忠孝東路四段 181 巷 40 弄 13 號)
- ☎ +886 2 2773-1358
- 🌐 vvgv.blogspot.tw
- 🕒 일요일 ~ 목요일 12:00-21:00, 금요일 ~ 토요일 12:00-23:00
- 📍 MRT 둔화역 (敦化站) 7 번 출구에서 도보 약 5 분 거리.

【동구상권 東區商圈】 소개 :

충효동로 4 단 (忠孝東路四段) 을 중심으로 하며 유행을 선도하는 곳이다. 백화점과 국제적인 명품점들이 밀집한 유행지이며, 골목 안에도 특색 있는 작은 상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 여행객들이 마음껏 구경할 수 있다.

추천노선 : 호양본사 (好樣本事) → 충효동로 4 단 205 골목 29 번 문화 창작 골목 (忠孝東路四段 205 巷 29 弄文創巷弄) → 딤타이핑 (鼎泰豐) → 둔남 성품서점 (敦南誠品) → 송산문창중심 (松山文創中心)





땅 하늘 바다로 즐기는 일월담

(르위에탄; 日月潭)

여러분은 여행을 할때 일상생활과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여본 적이 있나요? 대만 관광청은 한국 연예인 조정석과 대만 연예인 천이한(陳意涵)을 초청해 촬영한 단편영화 「푸둥푸둥 24시 타이완」 중, 일월담에서 둘이 만나는 장면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된다. 대만 최대의 민물 호수이자 관광명소이기도 한 일월담은 자전거, 유람선, 케이블카, 도보 등 땅 하늘 바다 다양한 방식으로 일월담을 여행해보자.



부엉이는 샤오족의 행운의 상징으로서 기념품점에서 다양하고 특이한 모양의 부엉이 모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일월담 안에 있는 라로(Lalu) 섬을 경계로 하여 호수 동쪽은 달모양, 서쪽은 해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일월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곳의 최초 주민은 현재 소족(邵族)이라 부르는 원주민 무리였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한 마리의 흰 사슴을 쫓아오다가 아름다운 이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의 라로섬이 바로 소족의 성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월담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여행이 아직 성행하지 않던 시대에 일월담은 신혼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있던 곳이다. 최근에는 주요 웨딩촬영지로 이 곳을 찾는다. 일월담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려면 현광사(玄光寺), 자은탑(慈恩塔), 현장사(玄奘寺), 문무묘(文武廟) 등 종교 순례지를 돌아보거나 공작 공원, 아삼 홍차와 최근에 완공된 향산(向山) 관광안내센터 모두가 주요 관광명소이다. 관광객들은 자연 산책로, 자전거, 유람선, 케이블카 등 여러 방식으로 일월담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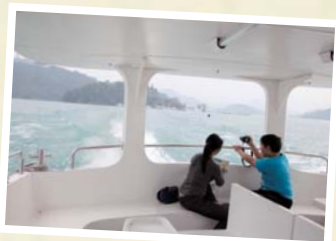


자전거를 타고 호수 둘러보기

면적 827헥타르의 일월담 호숫가를 둘러싼 찾길은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에 좋다. 전에 CNN 여행 홈페이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중 하나로 일월담이 선정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자전거길을 여행할 때, 현광사를 시작으로 하여 명담(明潭) 배수구에서 끝나는 「월담(月潭) 자전거길」도 잊지 말고 꼭 둘러보도록 하자. 월담 남쪽 연안의 굽이진 길을 따라가면 풍성한 생태 숲을 볼 수 있는데, 호수 위에 펼쳐진 400미터 길을 걸어보는 것도 꽤 재미가 있다. 이 외에도 수사패(水社壩)와 명담(明潭) 배수구 사이에 위치한 「향산(向山) 자전거길」은 경관이 수려하고, 일월담 서남쪽에 위치한 「두사(頭社) 자전거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들의 풍경과 날아가는 백로 떼들도 볼 만하다.

일월담을 천천히 걸어보자

풍경구 안에는 방문객들에게 일월담 곳곳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 처음 이 곳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수사(水社) 부두 옆에 위치한 「수사부두 산책길」을 가보는 것도 괜찮다. 전코스가 경사가 없고 평탄하여 걷기가 쉽고 구간마다 안내설명과 경치를 감상하는 곳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터 일월담을 생태교실이라 불려왔다. 또한 호수 맞은편 연안에 있는 「대죽호(大竹湖) 산책길」은 길이가 80미터 밖에 되지 않지만 일월담에서 특이한 관광명소인 일월 용천혈을 볼 수 있다. 높은 곳을 오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후침산(後尖山) 산책길」에 오르면 일월담의 아름다운 경치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또 다른 모습의 일월담, 케이블카로 즐기기

물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면 배를 타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일월담에는 매일 이달소(伊達邵) 부두, 현광사 부두, 수사 부두를 오가는 왕복선을 운행하는데, 그 중 현광사 부두 근처에서 파는 할머니표 삶은 달걀(茶葉蛋: 간장, 오향, 찻잎을 넣어 삶은 달걀)이 유명하고, 이달소 부두 주변에는 소죽 요리와 원주민 예술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사 부두는 일월담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으로 호숫가에 많은 커피숍이 들어서 있는데, 한낮의 호수 풍경과 야간 불빛쇼를 보고 있으면 흐뭇해진다. 이 외에도, 일월담 이달소-구족문화촌(九族文化村) 구간을 운행하는 케이블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 길이는 1.87킬로미터, 최고 높이 해발 1044미터로, 이동시간은 7분 정도 소요된다. 일월담 풍경을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월담 수륙공 하오쌍 티켓 (日月潭水陸空好行套票)



일월담의 다양한 매력을 구경하고 싶다면 일월담 육·공·해 관광 티켓을 구매해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가격은 NT\$330 이고 버스, 케이블카, 배를 이용할 수 있고, 특별 지정된 상점에서 자전거를 빌리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우대권을 제공한다. 타이중(台中) 시내를 왕복하는 관광객들은 구족문화촌 입장료를 추가로 구매하면 주변의 관광지까지 함께 구경할 수 있다. 현재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일월담 여행안내소에서는 다양한 패키지 투어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 www.sunmoonlake.gov.tw/smlbus



뉴얼 석조공원 향토 예술창작 여행

푸리에 가면 놓치면 안 될 명소 「뉴얼석조공원」이 있다. 타이완의 예술가인 린위안(林淵)의 작품을 비롯해 양잉핑(楊英風), 주밍(朱銘), 세동량(謝棟樑) 등 유명 조각가들의 대형 석조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린위안미술관에서는 회화, 목조, 자수 등 예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정오에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푸리 특유의 전원풍 요리 산나물 음식을 음미해보자. 4월에는 아름답게 산을 장식하는 동화와 동화를 주제로 벌어지는 각종 축제, 다채로운 음악회와 무용공연 및 아티스트의 현장 예술창작품도 즐길 수 있다.



난토우 (南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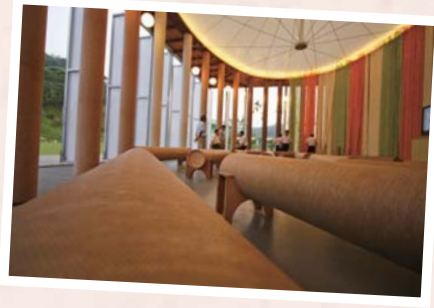
예술 문화 여행

타이완 하오싱선을 따라 중부 타이완의 색다른 지역특색을 느낄 수 있는 난토우 푸리, 석조공원, 종이교회를 둘러보자. 그리고 일월담 근처의 르위에 라오차창에서 그윽한 향기의 홍차를 여유있게 즐기며 또다른 문화를 체험해보자.



신고향 (新故郷) 견학공원 종이예술 문화체험

「신고향견학공원」의 푸른 잔디 위에 특이한 모습으로 서 있는 「종이교회」는 일본건축가 팡시게로가 지은 것으로, 구조는 58 개의 고압축펄프 대들보로 되어있고 지붕은 투명한 막으로 덮여있어 전체적으로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종이교회는 지역의 예배장소로 쓰이지만 비정기적으로 예술전시회 및 음악회장으로도 이용된다. 「종이가게」에서 파는 독특한 손가방, 모자, 커튼, 가구 등 종이 제작 상품들을 둘러보고 오후차를 즐겨보자. 입장권에 포함된 쿠폰으로 신선한 쥬스, 케익 및 머핀을 선택하여 맛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간식이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친서우야오 (親手窯) 직접 도자기를 빚어보자

타이 21 선에 위치한 「친서우야오」는 난토우의 도자기 문화산업의 주요 지점으로 입구에는 커다랗게 빚어진 「잉빈병 (迎賓瓶)」 도자기 장식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도예원에는 자신만의 도예품을 창작할 수 있는 점토교실, 전시실 그리고 DIY 도예체험을 할 수 있어 손수 만든 도자기를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고풍스런 레스토랑이 있으며 산수가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문화 예술을 감상하면서 전통 타이완 요리와 중국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르위에 라오차창 (日月老茶廠) 최상급 홍차를 음미하다

난토우현 위츠상 (魚池鄉)에 있는 르위에 라오차창은 입구에서부터 그윽하게 퍼지는 홍차향이 인상적이며 지방 유명 관광지이다. 1층 상품실과 전시실에서 옛날 차제조도구들과 차 제조과정을 관람하고, 이 곳의 생태지식와 다도를 배울 수 있다. 2층에는 차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여유있는 휴식공간과 난토우의 건강한 재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오가닉 레스토랑이 있고, 차와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독서관과 차품평교육관도 있다. 특히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아삼홍차는 최상급이다. 차원의 포장도 가볍고 특이해서 친구나 친척들에게 선물용으로 사가기에 적당하다.

Info

뉴얼 예술 리조트

☎ 난토우현 푸리전 중산루 4단 1호
(南投縣埔里鎮中山路四段 1號)
☎ +886 49 291-2248
☎ www.neveraart.com.tw
🕒 8:00-17:30

르위에라오차창

☎ 난토우현 위츠상 중밍촌 여우수이상 38호
(南投縣魚池鄉中明村有水巷 38號)
☎ +886 49 289-5508
☎ www.assamfarm.com.tw
🕒 8:00-17:00

신구상 견학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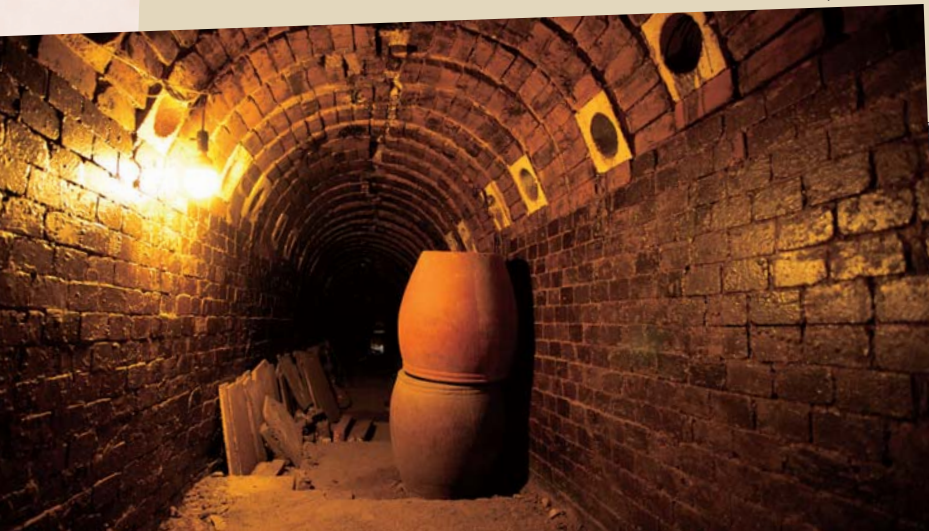
☎ 난토우현 푸리전 타오미리 타오미상 52-12호
(南投縣埔里鎮桃米里桃米巷 52-12號)
☎ +886 49 291-4922
☎ paperdome.homeland.org.tw
🕒 주중 9:00-20:00; 주말 9:00-21:00

친서우야오

☎ 난토우현 위츠상 중밍촌 원정상 1-22호
(南投縣魚池鄉中明村文正巷 1-22號)
☎ +886 49 289-8702
☎ www.qin-shou-yao.url.tw
🕒 8: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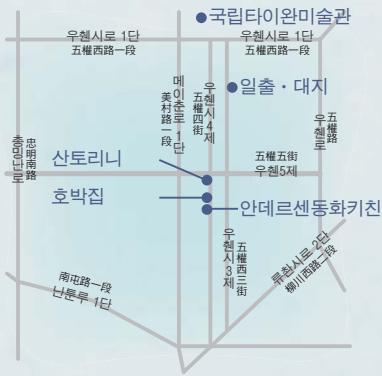
타이완하오싱의 추천코스 (르위에탄 코스)

뉴얼 석조공원역→종이교회 (타오미경 【桃米坑】역)→르위에라오차창역→친서우야오에서 도자기체험 (르위에라오차창 역) 친서우야오에서 도자기체험 (르위에라오차창 역)



매력이 넘치는 타이중 여행 (台中)

넓은 길과 푸른잔디, 이국적인 레스토랑과 특색 있는 상점들이 있는 「초오도 (草悟道)」는 타이중 (台中) 시에서 계획한 국제 관광지이다. 활력이 넘치는 타이중에서 예술문화의 기운을 마음껏 느끼며 1 중제상권에서 타이완식 간식거리들을 체험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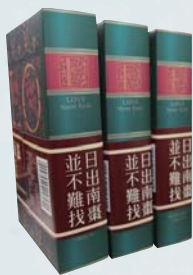


초오도 (草悟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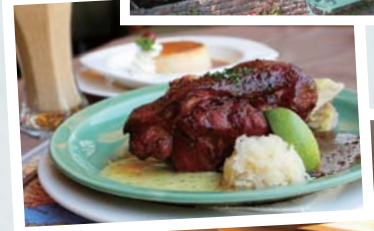
도시 속 미학공간을 천천히 거닐자

「국립과학박물관 (國立科學博物館)」에서부터 근처의 「근미성품 (勤美誠品)」, 「국립미술관 (國立美術館)」까지 한 길로 이어져 있는 약 3km의 초록 길은 깊은 인문 예술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거리로 타이중에 왔다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특색 있는 거리이다. 이 초록 거리에 도착했다면 여유로운 걸음으로 타이중의 풍부한 인문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알맞으며, 초록 공원과 쇼핑, 예술 분위기가 결합한 공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립미술관을 따라 남쪽으로 걸으며 산뜻한 녹지와 특색 있는 장치 예술을 감상할 수 있으며, 양쪽 길가에는 안데르센동화키친 (安徒生童話鄉村廚), 호박집 이탈리아레스토랑 (南瓜屋), 산토리니 (聖托里尼), 초승달 오동나무 (新月梧桐) 등의 유명한 각종 이국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어 대만 요리에서 상하이 요리, 원주민 요리, 이태리 요리까지 다 갖추고 있다. 이 곳에서는 맛있는 음식뿐 만이 아니라, 식사 후에는 현지의 특색 있는 카페 또는 차예관 (茶藝館), 예술품점을 찾아 들어가 좋은 차 한잔을 마시며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야외 정원 조경도 함께 감상하며 우아한 분위기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곳의 인문 차관 (茶館)은 비정기적으로 소형 연주회 또는 서화 전시를 주최하므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술가의 창의와 재치 있는 생각을 체험해 보는 것이 좋다.



정교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즐겼다면 이제 여행의 기념으로 타이중의 가장 유명한 파이애플 케익 (鳳梨酥)을 선물로 챙겨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어 보자. 미술관 녹색 공원길에 위치한 「일출·대지 (日出·大地)」는 상점 안을 복고풍으로 꾸며주며 상품 포장 역시 독특함과 창의성이 돋보인다. 특히 이 곳에서는 책으로 포장된 파이애플 케익 또는 차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대만의 신선한 파인애플로 제작하여 제대로 맛을 내었으며, 파이애플 과일 자체의 신맛과 가득 찬 느낌을 맛 볼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명 1 가 (징밍이제 ; 精明一街) 도시 속 예술회관을 걸어보자

초오도의 우아한 예술 분위기에 이어 정명 1 가를 걸으며 마치 파리의 향기 나무 길의 즐거움을 느껴보자. 대둔 19 길 (大墩十九街) 과 대룡로 (大隆路) 사이에 위치한 정명 1 가는 아름다운 보도와 이국적인 풍경을 지닌 쇼핑과 휴식 및 예술의 거리이다. 130 미터의 짧은 거리이지만, 명품 옷 상점에서 신발가게, 보석점, 화랑 등이 자리하여 각종 쇼핑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길가에 노천 카페 및 춘수당 (春水堂), EJ 카페 등의 지명도 높은 음식점들이 있어서 있다. 쇼핑에 피곤함이 느껴지면 언제든지 들어가 커피와 차, 에프터는 티를 즐기고, 예술과 음악 공연을 감상하며 변화로운 정명 1 가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정명 1 가에서는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말에 각종 예술 이벤트를 주최하여 여행자들이 장식품 DIY 재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에 여러 수공예 달인들이 직접 지도하며 관심 있는 여행자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1 중상권 (이중상권 ; 一中商圈) 인기 야시장의 맛있는 음식을 맛보자

도시의 예술 분위기를 체험했다면 길가 골목골목에 늘어서 있는 야시장의 음식 맛 보는 것도 좋은 듯하다. 맛있는 음식들을 맛 보며 타이중의 유명 상권인 「1 중가 (一中街)」의 매력을 느껴보자. 1 중 상권의 범위는 북쪽의 육재북로 (育才北路) 에서부터 남쪽의 태평로 (太平路) 및 육재남가 (育才南街) 을 포함하며 중우백화점 (中友百貨) 까지 뻗어 있다. 이 곳은 최신 유행 정보를 가진 곳으로 굉장히 변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상권이다. 또한 루웨이 (滷味), 지파이 (雞排), 문어완자 (章魚小丸子), 햄을 넣은 곱창 (大腸包小腸) 등의 각종 간식거리와 옛날 맛 홍차 (古早味紅茶), 흑설탕 분원 (黑糖粉圓) 등, 모두 놓칠 수 없는 맛있는 음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곳의 특이한 점은 상점들이 대부분 서점거리, 안경거리, 유행 옷거리, 간식거리 등의 같은 업종끼리 모여 거리를 형성하여 구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1 중 권을 떠나기 전에 타이중의 가장 유명한 명물인 장미파이 (薔薇派) 를 사가는 것을 잊지 말자. 장미파이는 파삭한 파이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구어 낸 것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교통정보

- 27 번 타이중시 버스를 타고 경국원도 (經國園道站) 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다초오도 (達草悟道)」에 도착함.
- 71 번 타이중시 버스를 타고 「광삼소고 (廣三 SOGO)」역에서 하차 후, 도보 15 분 정도면 「정명 1 가 이미지 상권 (精明一街形象商圈)」에 도착함.
- 「정명 1 가 이미지 상권 (精明一街形象商圈)」에서 3 분 정도 걸으면 충명소학교 (忠明國小)에 도달하고, 여기서 70 번 타이중 버스를 타고 「국립타이중 과학대학 (國立臺中科技大學)」역에서 하차하여 5 미터 정도 걸으면 「1 중제상권 (一中街商圈)」에 도착함.



대만의 아침 식사

아침식은 여행객의 기력을 북돋아 주는 중요한 끼니이다. 대만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아침식사를 파는 가게를 쉽게 볼 수 있고, 영업시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아침 메뉴로 하루 세끼를 해결해도 질리지 않을 것이다. 아침 메뉴는 다양하고 주로 중식과 양식으로 나뉘는데, 대만사람들 입맛에 맞춰 개량됐기 때문에 대만의 특색을 담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아침메뉴를 파는 특색 있는 가게 세 곳을 소개하며 대만의 아침식사 문화를 체험해보자.



샤오빙! 요우티아오 (燒餅油條)

샤오빙 (燒餅)은 중국에서 전해져 온 독특한 구운 빵으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위에 참깨를 뿌리고 오븐에 넣고 구워낸 것이다. 구워진 빵 가운데를 가르고 그 속에 요우티아오 (油條: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것)를 끼어 같이 먹는데, 이는 대만사람들이 즐겨먹는 메뉴이다. 고소한 외피와 안에 있는 바삭한 요우티아오를 한 입에 넣으면 두가지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

또자! (두유: 豆漿)

노란 콩을 원료로 만든 음료로,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 어떤 조미료도 넣지 않고 만든 「바이장(白漿)」(또는 「청장(淸漿)」), 설탕을 넣고 만든 「티엔장(甜漿)」, 그리고 식초, 소금, 간장, 갖 등의 재료를 넣고 만든 「시엔장(鹹漿)」이 있다. 시엔장을 먹을 때는 달걀이나 고추기름을 넣고 먹으면 더욱 맛있다.



만토우 (찐빵: 饅頭)

중국 전통 밀가루 음식으로,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찌서 만든 것이다. 각이 지지 않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고, 씹을 때 반죽항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맛이 있는데 다른 재료를 넣지 않은 원조 허안 찐빵 외에 흑설탕, 토란, 찹쌀 등을 넣은 찐빵도 흔히 볼 수 있다.



미장 (미숫가루: 米漿)

볶은 콩래쌀과 흰깨와 껍질을 벗겨낸 팥콩에 물을 붓고 설탕을 넣어 걸쭉하게 끓인 것으로 미숫가루와 비슷한 콩래쌀, 흰깨, 팥콩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료로, 색 짙은 두유보다 짙은 갈색을 띠고, 걸쭉하고 달콤하다. 콩국과 쌀죽을 합쳐 만든 것이 「콩쌀죽(또우미장: 豆米漿)」인데 콩국의 담백함과 쌀죽의 달콤함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

판톄안 (죽먹밥: 飯糰)

평평하게 편 따뜻한 찹쌀에 채소, 말린 고기, 오래 튀긴 요우티아오, 고깃가루(肉鬆: 돼지나 소고기를 가공하여 분말이나 풀송 모양으로 만든 것) 등의 재료를 더하여 말아 만들고, 부드러운 찹쌀과 소의 이삭함이 어우러진 맛을 느낄 수 있다. 죽먹밥 하나로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달걀 피, 조린 달걀, 소시지 등을 곁들여 먹으면 맛과 영양을 더한다.



중식 아침

로보카오 (무떡: 蘿蔔糕)

채래쌀가루와 옥수수가루를 섞어 만든 풀과 채썬 무를 찌서 만든 것이다. 홍콩식 무떡은 여기에 표고버섯, 말린 새우, 소시지, 소금에 말린 고기 등을 추가한다. 먹기 전에 기름에 한 번 부쳐내어 고소함을 낸다. 음식을 꺼내기 전에 풀어 놓은 달걀을 뿌려 익혀 같이 먹으면 맛을 더한다.



판비! (중식 달걀말이: 蛋餅)

피는 중력분을 반죽하여 만든다. 피는 팬에 넣고 부치다가 양면이 약간 노릇해지면 피를 넣고 풀어놓은 달걀을 붓고 부친다. 외피의 바삭함과 달걀의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바질, 치즈, 햄 등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다.

총조바! (파지짐: 蔥抓餅)

중력분에 참깨와 다진 피를 섞어 만든 외피를 약한 불에 천천히 부치다가 바삭해지면 뒤집개와 집게를 이용해 피를 골고루 자국을 넣는다. 노릇노릇하고 바삭한 피와 여러겹으로 포개진 속은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나고, 여기에 달걀을 넣어 먹어도 된다. 또한 치즈, 바질, 옥수수베이컨, 김치 등 다양한 맛도 있다.



텐수비! (단반: 甜酥餅)

작고 짙은 모습, 달콤한 맛은 아침 식사 후에 먹는 최고의 디저트이다. 쫄깃한 반죽에 달달한 꿀과 엿기름으로 속을 채워 오븐에 넣고 약한 불에 노릇하게 구워낸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바삭바삭한 맛과 엿기름함은 먹을수록 맛이 있다.



총화카오 셴비! (구은파바: 蔥花烤鹹餅)

발효된 밀가루 반죽과 중력분으로 만든 것으로, 다량의 다진 피와 흰 후추를 넣고 대통모양으로 말아서 겉은 시럽을 바르고 참깨를 가득 뿌린 다음, 오븐에 넣고 구우면 된다. 달콤하고 바삭한 피의 맛과 짭조름한 속이 입 안 가득 채우고 피의 향 또한 느낄 수 있다.



대만의 중식 아침은 중국에서 비롯됐지만 식감이나 맛을 개량하여 비교적 담백하다. 주로 지지거나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만들고, 식감은 바삭하거나 부드러우며, 먹을 때 간장소스, 달콤한 고추장소스,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



푸항 또장 (阜杭豆漿店)

☎ 타이베이시 중정구 종사오동로 1 단 108 호 (화산시장) 2 층 -28
台北市中正區忠孝東路一段 108 號 (華山市場) 2 樓之 28
☎ +886 2 2392-2175
⌚ 화 ~ 일요일 5:30-12:30, 휴무 - 월요일

칭다오 또장 (靑島豆漿店)

☎ 타이베이시 중정구 함저우난로 1 단 139 호
台北市中正區杭州南路一段 139 號
☎ +886 2 2393-4958
⌚ 5:30-11:30

라이라이 또장 (來來豆漿店)

☎ 타이베이시 내이후로 1 단 93 호
台北市內湖路一段 93 號
☎ +886 2 2797-9253 / +886 2 2798-8725
⌚ 24 시간

이런자

(울무쌈즙 : 薏仁漿)

울무쌈은 부종을 가라앉히고, 해독 및 미백효과가 있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아주 적합하다. 울무쌈에 물을 넣고 오래 끓이면 울무쌈즙이 되는데 살짝 달콤하면서도 입자가 살아있다. 한 컵의 열량이 겨우 200여 칼로리인 건강식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필수 아침 음료이다.



테반몐

(철판볶음면 : 鐵板麵)

테반몐은 원래 타이완의 저렴한 스테이크와 불가분의 인상을 주지만, 아침식사시계의 테반몐은 양이 비교적 적고 스파게티를 개량한 것이다. 면을 옥수수, 당근 및 푸른콩 등의 재료와 함께 고온의 철판에서 볶아 버섯소스 혹은 후추소스를 얹고, 입맛에 따라 계란, 스테이크, 치즈 등을 곁들일 수 있다.



루로비!

(치즈샌드위치 : 乳酪餅)

루로비의 주요 성분은 치즈, 밀가루, 버터 및 계란이다. 진한 치즈향의 루로비는 철판이나 오븐에서 양쪽 면이 노릇해지게 구워진 토스트에 양상추 혹은 참치, 햄 등의 재료를 넣고 기호에 따라 달콤한 과일잼을 추가한 것으로 맛과 영양이 모두 뛰어나다.

미함바오

(쌀햄버거 : 米漢堡)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동서양의 요소를 결합한 식품이다. 햄버거빵을 쌀로 대체하고, 서양식 속재료인 햄버거고기와 양상추 혹은 동양식 속재료인 불고기와 김 등 양쪽 모두가 완벽한 융합이 가능하다. 영양과 맛 둘 다 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이후 타이완의 서양식 프렌차이즈 아침식사시계 메뉴에도 추가되어 타이완인의 새로운 기호식품이 되었다.



로송투스단 (로송 계란 토스트 : 肉鬆吐司蛋)

타이완에만 있는 바삭한 로송과 노릇하게 구운 토스트를 결합한 것으로 토스트안쪽에 마요네즈를 바른 후 부드럽게 익힌 계란후라이를 넣는다. 한 입 베어 물면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융합되면서 로송 특유의 향이 더해져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아침식사이다.

수빙! (해수포테이토 : 薯餅)

단빙! (계란병말이 : 蛋餅)

수빙은 감자를 잘게 썰어 튀긴 음식으로 서양식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식사때 판매된다. 단빙은 중국식 아침식사이다. 타이완의 아침식사점은 아이디어를 짜내 이 두 개를 결합시켰는데, 철판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수빙을 단빙에 끼워 넣었다. 양도 푸짐하고 맛도 일품인 수빙단빙은 기호에 따라 케첩 혹은 간장소스를 첨가할 수 있다.



라야한바오 (拉亞漢堡)

☎ 타이베이시 중산취 민취안동루 3 단 103 상 3 하오
臺北市中山區民權東路三段 103 巷 3 號
☎ +886 2 2716-5472
⌚ 6:00-14:00



마이웨이잉 (麥味登)

☎ 타이베이시 중산취 룡장루 244 하오
臺北市中山區龍江路 244 號
☎ +886 2 7729-2550
⌚ 6:00-21:00



메이얼메이 (美而美)

☎ 타이베이시 다동취 창안시루 55 하오
臺北市大同區長安西路 55 號
☎ +886 2 2552-3250
⌚ 6:00-20:00

서양식 아침식사



타이완의 서양식 아침식사는 주로 유럽식·미국식 아침식사 중 빵에 주스, 차, 우유 및 커피 등의 음료를 곁들인 것이다. 그러나 타이완의 프렌차이즈 서양식 아침식사시계는 타이완인들의 입맛에 맞게 타이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쌀밥, 계란전, 로송 (말린 고기 가늘게 부순 것) 등의 식재료를 결합시킨 농후한 타이완풍의 서양식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의 식사



량면도인장국 (涼麵味增湯)

아침에 습관적으로 타이완식 냉면을 먹는 사람이 있다. 여우口 (밀가루 반죽에 계란 넣은 만든 면)에 마늘향의 마장 (깨양념장)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오이채를 얹어 아주 상큼하고 맛있다. 이때 딱딱한 생선뼈를 고아 끓인 웨이진 단화탕 (계란탕)이나 웨이진 궁원탕 (소고기원지탕)에 다진 피를 마지막에 넣어 함께 먹으면 맛있다.

요판 (•부밥: 油飯)

요판은 타이완의 전통 쌀요리 중 하나로 각종 형태로 타이완의 음식문화에 존재한다. 아기의 탄생 한 달 잔치용으로도 쓰이고, 포만감도 좋은 아침식사메뉴 중 하나이다. 요판은 찹쌀을 찌서 볶은 양념과 섞어 만든다. 일반적으로 고기채, 버섯, 홍충쑤, 건오징어 및 건새우 등을 양념으로 쓰고 마장 (깨양념장)과 간장으로 간을 하는데 식감이 아주 쫄깃하다.



셴저우샤오차이 (고기야채죽) 과 반찬: 鹹粥小菜)

타이완식 죽은 한 종류의 맛이 아니라 식습관과 지역에 따라 살코기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남부에서는 주로 생선을 넣는다. 뼈를 고아 탕을 만들고 탕 액기스를 흡수시킨 쌀을 적절히 끓인 후 튀긴 피와 건새우로 맛을 돋우는데, 이것이 바로 정통 타이완식 고기야채죽이다. 홍사오러우 (간장 양념한 돼지고기), 오징어말이 등을 곁들이면 옛스런 맛이 그득한 타이완식 아침식사를 맛볼 수 있다.



수차이룬비!쥬!안 (•야채스프링롤: 蔬菜潤餅捲)

야채섭취가 부족한 현대인에게 좋은 아채스프링롤은 전통 스프링롤을 개량한 것이다. 보리로 만든 롤피에 알팔파, 오이, 당근, 피망 및 양상추 등 각종 신선한 야채를 넣어 딸꾹기루를 뿌리고, 기호에 따라 건모도, 김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신선하면서 건강에 좋은 맛있는 아침식사이다.

타이완식 • 아침식사

초기 농업사회의 타이완인들은 아침식사가 정찬일 뿐 아니라 양과 영양 모두 겸비해야 했다. 전통 타이완식 아침식사는 밥과 반찬요리 위주였으나 점점 개량된 중국 각 성(省)의 이주민 식습관문화가 출현하면서 그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



저우지 로저우 (周記肉粥)

④ 타이베이시 광저우제 104 하오
台北市廣州街 104 號
☎ +886 2 2302-5588
⑤ 6:00-16:50 (매월 이틀은 비정기 휴일)



싼하오이공다오 량면 웨이전탕 (三好一公道涼麵味增湯)

④ 타이베이시 창안동루 2 환 171-9 하오
台北市長安東路二段 171-9 號
☎ +886 2 2773-6668
⑤ 6:00-15:00

문화와 예술



중정기념당 (中正紀念堂)

중국 궁전식으로 지어진 건축물로서, 넓게 차지하고 있는 광장은 타이베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모임 및 웨딩촬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며, 타이완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코스 중 하나이다. 또한 광장 안에 있는 두 극장과 중정미술관은 문화예술 공연, 전시 공간으로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곳에서 전시작품과 공연을 관람한다.

[최근 활동]

모험가—제국보물 전
(大冒險家—帝國寶藏展)

- ☎ 현재 전시 중~4월 14일
- ☎ 중정예랑(中正藝廊)



- ☎ 타이베이시 중산로 21호
(台北市中山南路21號)
- ☎ +886 2 2343-1100
- ☎ www.cksmh.gov.tw



타이완박물관 (台灣博物館)

타이베이시 228평화공원 북측에 위치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립 박물관으로서,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인 동시에 고적이기도 하다. 안에는 타이완 생물 전시관과 타이완 원주민 전시관으로 나뉘져 있고, 시기별 작품들 전시하는 전시 공간을 한쪽에 따로 마련해 놓아 타이완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활동]

타이완의 「산호」, 동사(東沙) 산호섬 특별전

- (臺灣「礁」點·東沙環礁特展)
- ☎ 2012년 12월 28일~2013년 9월 1일
- ☎ 타이완박물관 GG01



- ☎ 타이베이시 상양로 2호 228 평화공원 내
(台北市襄陽路2號 二二八和平公園內)
- ☎ +886 2 2382-2566
- ☎ www.ntm.gov.tw/tw



역사박물관 (歷史博物館)

타이베이 식물원 안에 위치해 있고, 외관은 중국 건축양식이다. 장기적인 전시품에는 갑골, 청동기, 도자기, 문헌 등이 있고, 또한 교육 홍보, 학술 연구와 관련된 전시활동을 개최하거나 수많은 해외 유명 문화예술 교류전을 열기도 한다.

[최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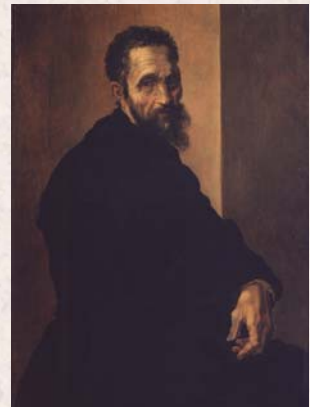
쿠로키 구니야키 50년 유리 예술—대일 예술문화 교류전
(黑木國昭50年玻璃藝術—台日藝文交流展)

- ☎ 현재 전시 중~3월 31일
- ☎ 2층 20-203 전시관



「천국, 심판, 부활 미켈란젤로 : 르네상스 거장의 재현」 특별전
(「天堂·審判·重生 米開朗基羅 : 文藝復興巨匠再現」特展)

- ☎ 현재 전시 중~5월 12일
- ☎ 1층 특별전시관
- ☎ michelangelo.mediasphere.com.tw



- ☎ 타이베이시 난하이로 49호
(台北市南海路49號)
- ☎ +886 2 2361-0270
- ☎ www.nmh.gov.tw



**타이페이 시립미술관
(台北市立美術館)**

1983년 정식으로 개관하였으며, 약 6200평 대지에 전통 사합원 양식과 현대감의 입체 조형이 융합되었다. 9미터의 3층 건물 높이로 "井"자형 구조로 이루어졌다. 사면을 유리로 설계하여 내면의 자연 채광을 높였으며,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이동, 변화하여 자연의 특색을 나타낸다. 현대예술 위주로 전시하는 타이완 최고의 전시관으로, 국내외 예술품을 자주 전시하며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전시회를 주최하여 민중들의 예술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있다.

[최근 활동]
당대 초상 경험
 (真真：當代超常經驗)
 ☉ 현재 전시 중 ~ 2013년 5월 9일
 ☉ 1층1A~1B



가려진 진실: 복구된 전시품
 (隱藏的真實：典藏品修復展)
 ☉ 현재 전시 중 ~ 2013년 5월 26일
 ☉ 2층2A~2B

☉ 타이페이시 중산구 중산북로 3단 181호
 (台北市中山區中山北路三段181號)
 ☉ + 886 2 2595-7656
 ☉ www.tfam.museum



**화산1914창의문화원 구역
(華山1914創意文化園區)**

1916년에 건립되었으며 원래는 "타이페이 술 제조 공장 (台北酒廠)"이었다. 후에 정부가 유적지로 지정, 전체를 수리하여 구 공장 구역과 공원구역으로 나누어 조성하여 2005년 다시 문을 열었다. 공원구역은 공원녹지와 창의 디자인 작업장 및 창의 작품 전시센터로 타이완 디자인 능력과 생활미학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술가들의 교류와 학습을 제공하며, 창의작품 광고와 마케팅의 공간이다.

[최근 활동]
캔디드림공원특별전
 (糖果夢公園特展)
 ☉ 현재 전시 중 ~ 2013년 3월 10일
 ☉ 동 2관-B



순간의 영원-폴리처상 70주년 사진전
 (瞬間的永恆—普立茲新聞攝影獎70年大展)
 ☉ 현재 전시 중 ~ 2013년 4월 17일
 ☉ 중 4관-B



☉ 타이페이시 중정구 팔덕로 1단 1호
 (台北市中正區八德路一段1號)
 ☉ + 886 2 2358-1914
 ☉ www.huashan1914.com



**타이페이 당대 미술관
(台北當代藝術館)**

1921년에 건립되었으며 원래는 "건성소학교 (建成小學校)"라는 일본인 학교였다. 2층의 건축물은 아열대 문화의 붉은 벽돌과 목재기둥으로 서양문명의 건축양식과 일본식 기와 지붕이 결합된 건축의 미학을 보인다. 후에 정부가 타이페이시 유적지로 지정, "타이페이 당대 미술관"으로 활성화하여 예술, 유적지, 과학으로 결합되어 다채롭고 탁월한 당대 예술 전시들을 주최하고 있다.

[최근 활동]
말세의 화석- 미래의 고적
 (末世化石未來考古)
 ☉ 현재 전시 중 ~ 2013년 4월 14일
 ☉ 2층 주전시장



☉ 타이페이시 대동구 장안서로 39호
 (台北市大同區長安西路39號)
 ☉ + 886 2 2552-3721
 ☉ www.mocataipei.org.tw

2012 출입국 인수 통계

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인구 통계 : 7,311,470인(+20.11 %)
 외국인 관광객 인구 통계 : 3,831,635인(+6.77%
 (한국 관광객 인구 통계) : 259,089인(+6.66%
 교포 관광객 인구 통계 : 3,479,835인(+39.26%
 출구 인구 통계 : 10,239,760인(+6.84%

2011-2012년 매달 출국 인구 통계 비교표

월	2012년 (단위 : 인)	2011년 (단위 : 인)	비율 (%)
1	901,293	690,743	30.48
2	772,495	804,856	-4.02
3	723,643	667,160	8.47
4	851,486	752,558	13.15
5	849,354	809,015	4.99
6	908,600	890,332	2.05
7	1,041,365	1,026,829	1.42
8	933,988	911,458	2.47
9	818,593	823,272	-0.57
10	912,063	844,814	7.96
11	773,440	706,108	9.54
12	753,440	656,728	14.73
통계	10,239,760	9,583,873	6.84

도표1 2011년~2012년 매달 타이완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통계와 비교표:

월	2012년 (단위 : 인)				2011년 (단위 : 인)				비율 (%)		
	통계(A)	교포(C)	외국인(E)	매일 평균	통계(B)	교포(D)	외국인(F)	매일 평균	통계(A/B)	교포(C/D)	외국인(E/F)
1	460,064	195,807	264,257	14,840	400,617	137,784	262,833	12,923	14.84	42.11	0.54
2	525,240	213,007	312,233	18,112	453,468	175,034	278,434	16,195	15.83	21.69	12.14
3	693,185	324,900	368,285	22,361	518,215	205,166	313,049	15,717	33.76	58.36	17.64
4	691,086	375,198	315,888	23,036	550,158	268,882	281,276	18,339	25.62	39.54	12.31
5	599,098	295,070	304,028	19,325	470,471	199,191	271,280	15,176	27.34	48.13	12.07
6	607,778	297,146	310,632	20,259	462,640	180,262	282,378	15,421	31.37	64.84	10.01
7	592,449	319,054	273,395	19,111	458,122	193,261	264,861	14,778	27.23	58.90	3.22
8	607,122	298,228	308,894	19,584	506,898	209,942	296,956	16,354	19.77	42.05	4.02
9	550,901	254,827	296,074	18,363	460,994	171,693	289,301	15,366	19.50	48.42	2.34
10	610,342	286,255	324,087	19,688	530,430	215,781	314,649	17,111	15.07	32.66	7.80
11	671,617	307,290	364,327	22,387	619,343	269,367	349,976	20,645	8.44	14.08	4.10
12	702,588	313,053	389,535	22,664	648,594	264,860	383,734	20,922	8.32	18.20	1.51
통계	7,311,470	3,831,635	3,479,835	19,976	6,087,484	2,498,757	3,588,727	16,678	20.11	39.26	6.77

도표2 2011년~2012년 타이완을 방문하는 한국인 통계와 비교표

월	2012년			2011년	
	인수	매일 평균	비율 (%)	인수	매일 평균
1	25,760	830	5.94	24,316	784
2	23,284	802	0.41	23,190	828
3	21,571	695	10.44	19,531	630
4	19,862	662	6.46	18,656	621
5	20,535	662	0.60	20,413	658
6	19,831	661	-1.64	20,161	672
7	18,976	612	6.89	17,752	572
8	21,566	695	1.02	21,348	688
9	19,439	647	8.02	17,996	599
10	20,839	672	16.69	17,859	576
11	23,001	741	10.17	20,878	695
12	24,425	787	17.42	20,802	654
통계	259,089	707	6.66	242,902	665

도표3 2011년~2012년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 인구 통계표

월	2012년			2011년	
	인수	매일 평균	비율 (%)	인수	매일 평균
1	17,516	565	30.37	13,436	433
2	14,535	501	2.95	14,118	504
3	12,733	410	31.44	9,687	312
4	11,673	389	23.11	9,482	316
5	12,505	403	8.61	11,514	371
6	10,638	354	-2.94	10,960	365
7	10,672	344	14.67	9,307	300
8	13,481	434	8.32	12,446	401
9	11,084	369	18.79	9,331	311
10	12,585	405	32.77	9,479	305
11	14,368	478	27.29	11,288	376
12	16,363	527	28.39	12,745	411
통계	158,153	432	18.21	133,793	366

통계: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